

SUPREME MASTER CHING HAI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91호



♥ 빛나는 세계 사진상
현신적인 동물 애호가
'빛나는 세계 사진상'을 받다

♥ 발명 영웅상
보병 태양열 온수기



전세계 위성으로 방송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인터넷 시청 <http://www.SupremeMasterTV.com/kr>

겸손해야 참된 지식이 드러난다


청하이 무상사/ 2007. 8. 22.
프랑스 파리 유럽 선삼 (원문 영어)

겸손은 매우 중요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에고가 없다는 뜻이지요. 에고는 겸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스승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많은 문제와 골칫거리를 안겨 줍니다. 설령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해도 에고로 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그런 식이니까요! 여러분은 다른 모든 사람을 무시합니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방식이 그런 식이라서 그런 겁니다. 에고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끌면 타인의 편리나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여러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안 좋지요. 사람들이 이미 죽인 것을 먹는 건, 예, 약간의 업장을 받고 자비심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일 뿐이지요. 하지만 에고가 있으면 자비심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자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느낌, 감정, 요구를 무시합니다. 눈이 먼 것이지요! 에고가 있으면 자신만을 생각하여 이런저런 걸 하고 싶어합니다. 자기 방식으로만 하고 다른 대안은 모색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려하지 않고요. 이 에고가 여러분과 신의 참된 지식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고가 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총명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람이 알고 있는 뭔가를 배워서 따라하는 앵무새인 셈입니다. 정말로 총명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에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식은 빛나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옳게 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위협이나 골칫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에고를 두려워하십시오. 에고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에고를 갖게 될까요? 에고는 전생의 인상과 축적된 습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생활 배경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배워서 거기에 능숙해지고, 또 다른 것을 배워서 그것도 잘하게 되면 모두가 여러분을 계속 칭찬하지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러분은 칭찬받는 데에 아주 익숙해져서 에고가 자라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최고 노릇을 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면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이니 없애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에고를 제거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지식이 진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말에,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듯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무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재능이나 지식을 과시하지 않을 테니까요. 과시하고 싶어하지도 않지요! 무엇을 알고 있어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참된 지식, 진정하고 근원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기술이라는 것을 배우느라고, 아니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학설이나 책략, 특수한 재능을 배우느라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위대한 진아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진정한 지식을 포기해 위대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건 최우선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생계를 위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기술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지식을 포기한다면 정말 아주 딱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고만 키우고 우리를 참된 지식으로부터, 모든 것을 아는 그분으로부터, 어디에나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결코 잘못되지 않는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더 갈라놓을 것입니다. 

뉴스잡지 19호



출판일자: 황금시대 5년(2008년) 7월 19일
 설립년도: 1990년 4월 1일
 발행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Hsieh Hsin-lin
 인쇄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는 뜻인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들이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영성 고양과 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십니다.

CONTENTS 차례

-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겸손해야 참된 지식이 드러난다
- 04 다채로운 이벤트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포모사/ 어울락/ 불가리아
- 22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전세계 위성으로 방영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한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진동
- 24 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니
- 25 신기한 감응
스승님의 사랑 어린 경고
- 25/47 스승님의 농담
신통한 방법/ 소중한 유품
- 26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뒤즈롱 양/ 모비나 제퍼 상원의원
- 28 관음 웹사이트
- 29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산콕/ 노먼 블로그 박사
- 32 빛나는 세계 사진상
모하멧 샤히돌라
- 34 발명 영웅상
보병 태양열 온수기
- 36 황금시대의 생활 방식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적합 기술 캠퍼스 센터
- 37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보다 문제를 아는 것이 더 좋다
- 38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송고한 품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
- 40 신의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교실에서의 영성 교육
- 41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긍정적인 소식
행복 수업이 영국 학교에 개설되다
- 42 동물의 감성 세계
까마귀의 영민한 지능/ 나눌 줄 아는 백조/ 운명에 절대 굴하지 않는 타로-불완전한 몸을 가진 건공/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시청에 흠뻑 빠진 고양이
- 45 채식 시대
채식인에게 생명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영국/ 채식은 토지 자원을 덜 소모시킨다
- 46 이야기 세상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온 가족과 친척, 친구를 돌보신다
- 48 사랑의 실천
북한/ 대한민국/ 니카라과/ 수단/ 포모사
- 56 전세계 연락처
-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DVD

동 물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아울러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의 마음에서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을 디자인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계에 제시하셨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계적인 질병 위기를 극복하고 동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채식 생활을 선택하고 살생을 멈추라고 일깨워 준다. 모든 동수들에게 세계 곳곳의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라고 하신 스승님의 당부에 따라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캐나다

마음 훈훈한 세미나

토론토 뉴스그룹 (원문 영어)

【토론토】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23일 일요일, 토론토 센터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 공립 도서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소식은 신문 두 곳에 실렸다. 총 4천 장의 전단이 배포되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제23회 토론토 채식 음식 박람회'에서 배포되었다.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을 예상하여 많은 동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우리는 많은 채식 요리와 커피, 차, 여러 가지 음료들을 준비했다. 스승님 사진과 깃발, 그림, 만세등으로 장식된 세미나실에는 스승님의 서적·잡지·CD·DVD도 전시되었다. 예상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음식을 좋아했다. 비디오 시청 후,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관한 질문을 했으며, 참석자 중 약 2/3가 남아서 방편법을 배웠다.




몇몇 방문객은 스승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 세미나에 인도하셨고 어떻게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보살



펴 주시는지, 그리고 정원의 꽃들을 돌보는 것 같은 소소한 기도를 비롯한 자신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도서관의 경비원도 우리 세미나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한 사저가 스승님에 대해 소개하자 한참이나 귀를 기울였다. 모든 새 방편 수행자는 채식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생명을 위한 대안적인 삶 조리법(Alternative Living Recipes for

Life)』이라는 소책자를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이 편리하고 다채로운 요리책을 받고 아주 기뻐하면서 곧바로 읽기 시작했다.

이 신실한 영혼들이 대안적인 생활 방식을 향하여 좋은 출발을 하고,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여정이 순탄하기를 기원한다. 


도서 잡지 축제-‘가두 도서전’

토론토 뉴스그룹 (원문 영어)

[토론토] ‘가두 도서전(The Word on the Street)’은 독서를 권장하고 문맹 퇴치를 이끄는 캐나다 최대의 연례 도서·잡지 축제이다. 이 행사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시인, 도서·잡지 발행인, 읽고 쓰기 교육 단체와 다양한 협회들이 참가한다. 올해 행사는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30일, 토론토를 포함한 5개 도시에서 개최됐는데 약 18만 5천 명이 참관했다.

이 행사를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긴 토론토 동수들은 좋은 위치에 부스를 확보하고 열심히 행사 준비를 했다. 그달 초에 이미 3일간의 ‘연례 채식 박람회’에 참가하고 비디오 강연회도 한 차례 개최했었지만 동수들은 도서전도 대단히 열성적으로 준비했다. 우리 부스는 대형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포스터로 장식하고 스승님의 새로 나온 책들을 전시했다. 우리는 방문객 모두에게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 전단,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정보, 그리고 센터 연락처를 나눠 주었다. 견본책자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30분 만에 몇 상자가 모두 배포되어 나중에 더 가져와야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책과 가르침에 매우 관심이 많았으며 명상과 채식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했다. 스승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방문객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스승님의 법상과 함께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동수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부스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앞으로 있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것뿐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눠 주고자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 전단을 기꺼이 받아 갔다.

이 행사는 많은 독서가와 가족들, 어린이, 개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을 안겨 주었다. 우리 부스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발산하는 밝은 빛으로 둘러싸인 듯이 보였다. 모든 동수들이 사랑과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스승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었던 이 유례없는 기회에 감사히 여겼다. 



미국

오아후 섬에서 스승님의 사랑 펼치기

하와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하와이]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22일 토요일, 하와이 센터 동수들은 하와이 오아후(Oahu) 섬의 윈드워드 지역 사회 대학(Windward Community College)에서 개최한 ‘호올라우레아 박람회(Ho’olaulea Fair)’에 참석했다. 이 하루 행사에 약 2만 5천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다.

동수들은 부스를 설치하고 스승님 서적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대안적인 삶, 채식 생활 방식’도 널리 알렸다. 동수들의 유니폼인 ‘대안적인 삶’ 티셔츠는 방문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에게 천상의 상점(Celestial Shop) 웹사이트를 소개했다. 또한 계란이 들어가지 않은 행운의 과자와 채식 점심이 대중들에게 제공하자 많은 사람들이 동수들이 만든 음식을 좋아했고 자신의 식습관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가졌다. 『생명을 위한 대안적인 삶 조리법』책자는 인기가 좋아 어떤 방문객들은 친구와 친척들과 나누려고 몇 권씩 가져가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견본책자와 뉴스잡지에서 채식에 대한 글을 읽고 난 후 “누가 이런 글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와이 센터 동수들 대부

분이 이런 행사에 참가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스승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나누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정말 신의 은총이다. 🦋

렉싱턴에 신의 메시지를 소개하다

켄터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켄터키]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8일, 다른 주 동수들의 도움을 받아 켄터키 센터는 ‘렉싱턴 고유 문화 유산 축제(Lexington Roots and Heritage Festival)’에 참가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널리 알리고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대중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 축제는 열아홉 번째 맞는 이 고장의 연례 아프리카계 미국

인 문화 축전이였다.

날씨가 화창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보였다. 그래서 협회 회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과 ‘대안적인 삶’ 전단·가방을 나눠 주었다. 모두가 고맙다고 하며 활짝 웃는 것으로 보아 메시지가 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갖고 부스로 와서 견본책자를 부탁했다. 한 여성은 스승님의 사진을 알아보고 말했다. “저분을 알아요! 저분을 TV에서 봤는데 참 좋아해요.” 지난 4년간 유선 방송을 통해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방영해 왔던 우리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다. 그녀는 견본책자



를 받고 기뻐하였으며 관음법문에 대해 우리와 토론했다. 오랫동안 채식하고 있는 방편법 수행자 한 사람은 우리를 보고 매우 반가워하며 영성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어린이들은 스승님의 사진을 좋아해서 부스에 다시 찾아와 집에 가지고 가 친구들에게 나눠 줄 전단을 더 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 박람회에 참석해서 ‘이웃’과 스승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나누는 특권을 얻은 것은 아주 좋은 체험이었다. 우리에게 이런 멋진 시간을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모두가 힘을 합치면 신의 평화의 메시지가 세상의 다른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다. 



노동절 퍼레이드에서 스승님의 메시지를 나누다

일리노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일리노이] 네이퍼빌(Naperville)은 시카고 교외의 한 마을로서 일리노이에서는 유일하게 『머니(Money)』 잡지의 ‘2006년 가장 살기 좋은 곳’ 명단에 오른 곳이다.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3일 월요일, 일리노이 센터 동수들은 20년 넘게 해마다 열리고 있는 ‘네이퍼빌 노동절 퍼레이드(Naperville Labor Day Parade)’에 참가했다. 이 행사에는 지역 주민 전체와 30만 명 이상의 방문



객들이 참가한다.

우리는 다른 100여 곳의 단체와 함께 행렬에 참가해 ‘대안적인 삶’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을 나눠 주었다. 행사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를 매우 잘 받아들여서 1시간도 못 되어 약 6천 장의 전단이 배포되었다. 두 명의 동수는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런 동물 복장을 했다. 어린이들이 행렬로 뛰어들어 와 동물들, 특히 ‘새끼 돼지’를 껴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스승님의 현존하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내년 행진에 참가할 때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행운의 과자와 가능하면 사탕도 나눠 주기로 했다.

행사가 끝나자, 동수들은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스승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기쁨과 사랑으로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불렀다. 우리는 내년 행사를 고대하며 그 사이에 있을 다른 기회도 기대하고 있다. 🦋

세계 채식주의의 날에 신의 사랑을 나누다

샌프란시스코 뉴스그룹 (원문 영어)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센터는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29일, ‘샌프란시스코 채식주의 협회(Vegetarian Society)’의 후원으로 골든 게이트 파크(Golden Gate Park)에서 열린 제8회 ‘세계 채식주의의 날(World Vegetarian Day)’ 기념 행사에 참가했다. 사형사저들은 부스를 설치하고 견본책자, 『채식 조리법』 책자, 천 개의 ‘대안적인 삶’ 가방을 나눠 주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대안적인 삶’을 널리 알렸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런 공짜 선물을 받고 기뻐했다.

축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 서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우리 부스는 누구나 꼭 지나쳐야 하는 입구 정면에 자리잡게 되었다. 입구 바로 옆에 설치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포스터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어린이들은 스승님의 신간인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에 흠뻑 빠졌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몇몇 채식주의 출판자들



은 채식 생활 방식을 보

급하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아주 기뻐하였다. 우연히도 한 채식주의 상인은 이 긍정적인 TV 채널에서 방영하는 ‘동물의 세계’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숭고한 생활 방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각 가정에 신의 메시지를 전하다

오클랜드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오클랜드] 작년부터 오클랜드 동수들은 신이 전해 준 사랑의 메시지, ‘대안적인 삶, 채식하는 생활 방식’이 지역의 모든 가구들에 전해지길 바라며 그 보급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명상 홀 뒷벽에 커다란 지도를 붙였다. 지도에 난 수없이 많은 도로를 살펴본 후 우리는 이 일이 대단히 어렵고 어마어마한 계획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스승님의 축복으로 동수들은 용기를 가지고 모든 장애를 극복했으며, 불굴의 정신으로 이 고귀한 일을 수행해냈다.

계획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신께서 전세계에 멋진 선물을 선사하셨음을 깨달은 동수들은 즉시 30만 장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을 인쇄해 ‘대안적인 삶’ 전단과 함께 배포했다.

1년간의 부지런한 노력 끝에 동수들은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22일, 드디어 목표를 달성하여 오클랜드 전 가정에 ‘대안적인 삶’ 전단을 전할 수 있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도 함께 받았다. 이 계획이 완수되었을 때 모두 뿔 듯이 기뻐하며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동수들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소풍을 가서 이를 자축하는 한편 아직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을 받지 못한 가정에 전단을 돌릴 계획도 세웠다.

동수들이 처음 이 계획을 추진하던 작년 5월 당시 뉴질랜드는 춥고 습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평소처럼 많은 비가 내렸지만 동수들이 매주 토요일 아침, 전단을 배포할 준비를 할 때마다 기적처럼 비가 멈추었다. 모두가 스승님의 세심하고 사랑 어린 보살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는 농담 삼아 이 활동을 ‘일석삼조’라고 불렀다. 다른 이들과 자신들에게 이로움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기회도 되었기 때문이다.

전단을 배포하는 동안 동수들은 종종 사람들이 우편함을 열고 전단을 유심히 읽으며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메시지에 담긴 고귀한 이상을 찬탄하기도 했다. 많은 동물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 주었다. 어떤 사형은 이렇게 말했다. “개가 짖을 때마다 ‘우리는 동물 보호를 알고 있단다.’ 하고 말해 주면 그 즉시 짖는 것을 멈추고 꼬리를 흔들며 호감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한번은 어떤 사형이 우산 가져가는 것을 잊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주 걱정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제발 비를 멈춰 주세요. 전단이 다 젖겠어요.” 그 순간 그가 서 있는 20미터 앞에서 바람이 내려와 소나기를 쏟아가 버렸다. 그 사형은 전단이 조금도 비에 젖지 않았으며 배포가 끝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사제가 동수들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했다. “전단을 배포하면서 나는 늘 길거리의 아름다움을 즐기곤 했습니다. 나무나 꽃, 산과 바다, 혹은 푸른 하늘의 흰 구름, 천국을 날아다니는 새, 그 무엇이건 간에 신의 창조물 하나 하나가 더없이 장엄하며 내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종종 놓치곤 하는데 전단 배포를 하면서 우주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감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의 사랑을 전할 계획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신으로부터 넘치는 축복과 사랑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스승님께서 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상기시키시는 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세상 구석구석에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져다주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참가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뉴질랜드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열성적으로 알리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뉴질랜드 여러 곳에서 전단을 나누어 주는 것과는 별도로 오클랜드 동수들은 신문과 잡지, 야외 광고판, 국제공항에도 광고를 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장벽들은 스승님의 사랑 어린 지도와 축복으로 하나씩 제거되었고 보다 쉽게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우리는 우선 뉴질랜드 최대 일간지와 가장 많이 보는 잡지 중의 하나인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리고 노스아일랜드(North Island)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해밀턴의 가장 인기 있는 신문에 광고를 실었다. 또한 번잡한 교차로에 있는 대형 옥외 광고판을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야간 조명 설비



가 갖추어진 정말 좋은 자리를 발견했다. 광고 대행업체는 월 임대료도 대폭 할인해 주었다. 그 회사의 비서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아주 감탄한 나머지 자발적으로 포스터의 인쇄 품질을 확실히 보장해 주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아름다운 사진이 분명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사랑 어린 메시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와 가장 인기 있는 신문들에 실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

최근 동수들의 오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져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 포스터가 설치되었다. 광고 대행업체와 말이 돼 있던 회사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눈에 잘 띄는 장소 두 군데가 우리에게 배당되었다. 현재 포스터 하나는 이미 공항의 탑승 수속을 밟는 곳 앞에 있는 전광판에 설치되었고, 다른 하나는 입국 게이트의 주요 입구를 향해 놓이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놀랍고 기쁘게도 광고 대행사로부터 한 번 더 할인을 받기도 했다. 공항 직원들뿐 아니라 더 많은 여행객들과 친척, 친구들이 이 굉장한 메시지를 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 우리 모두 큰 축복과 행복을 느꼈다.



오클랜드 공항에 설치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널리 알리는 과정을 통해 오클랜드 동수들은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스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시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신의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우리 일을 해야 한다! 🦋

호주

긍정적인 고속도로 광고판

시드니 뉴스그룹 (원문 영어)

[시드니] 시드니 남쪽의 주요 고속도로에 아름답게 장식된 광고판이 처음 등장함에 따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한 긍정적이고 정신을 고양시키는 소식이 시드니에 점점 널리 퍼지고 있다. 매일 55,256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광고판은 한 달간 전시된다. 이것은 시드니 시민들에게는 대단한 축복이며,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이 밀려들 것이라 기대한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창립해 긍정적이고 사람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한마음으로 ‘국제 평화의 날’을 경축하다

욕야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욕야카르타]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21일, ‘국제 평화의 날’을 합동으로 경축하자는 ‘인도네시아 채식인 협회(IVS)’ 욕야카르타(Yogyakarta) 분회의 초대를 받은 동수들은 다가올 이 긍정적인 행사를 위해 함께 협력해 준비했다.


가자마다(Gadjah Mada) 대학 앞 붐비는 거리에서 진행된 평화 시위에서 우리 동수들은 수백 권의 ‘사랑 소책자’를 행인들에게 배포했다. 이 유익한 소책자에는 채식에 관한 훌륭한 정보들과 스승님의 강연 발췌문, ‘대안적인 삶’·‘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채식 식당 목록 등이 들어 있다.



우리는 대회 측에서 친절하게 제공해 준 작은 부스에 ‘대안적인 삶’ 깃발과 스승님의 견본책자도 전시했다. 또 채식 식당을 운영하는 몇몇 동수들은 보기 좋고 군침이 도는 음식과 케이크를 제공하여 이 행사를 후원해 준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게 맛보였다. 그중 많은 이들이 채식 음식의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과 맛있는 채식을 소개할 이런 값진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스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로 그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그리하여 그들이 채식의 이로움과 평화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대한민국

세계 채식인의 날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서울]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1일, 서울 센터 동수들은 시내 중심가에서 열린 ‘세계 채식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는 맛있고 영양 많은 사랑의 채식 음식 30여 가지를 준비해 사람들에게 맛 보였다.

약 천 명의 시민과 외국인 방문객들이 큰 관심을 갖고 요리들을 맛보았는데, 콩고기의 맛과 모양이 진짜 고기 같다고 놀라워했다. 그들은 이런 건강식품이 몸을 더 편하고 가볍게 해주며 자신들에게 긍정적이고 대안적인 생활 방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어떤 동수들은 동물 복장을 하고 또 어떤 동수들은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동물은 우리의 친구이지 음식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주로 ‘채식으로 대안적인 삶’이라는 표제로 신문 기사와 사진, 비디오 형식으로 소개되었다. 한국에서 ‘대안적인 삶’ 프로젝트가 계속됨에 따라 ‘대안적인 삶’이라는 말이 신속하게 퍼져 가고 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한 대안적인 삶

부산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부산]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3일, 부산 동수들은 ‘지구의 미래를 위한 대안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채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은 하늘이 열리고 성인이 내려와 세상을 다스린 것을 상징하는 개천절이었다.

이 행사는 많은 매체의 주목을 받아 『부산일보』, 『법보신





문』, 『현대불교』와 같은 주요 신문들과 『부산대학보』에서 채식과 채식 관련 주제를 다룬 특별 기사를 실었다. 불교 라디오 방송은 불교에서의 채식이라는 문제에 대해 동수들과 대담한 내용을 방송하였다.

부산에서 가장 큰 서점 중의 하나인 영광도서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환경, 건강, 동물 사랑, 명상 등 네 가지 각도에서 조망해 본 채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다. 기조 발표를 한 동수는 육식으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점들과 대안적인 삶인 채식이 가져오는 이익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동물보호협회’의 회장인 한 사저가 동물이 도살되는 끔찍한 장면을 보여 주자 참가자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연이 끝난 후, 동수들은 음악회와 채식 뷔페를 마련하였다. 한 사형은 본인이 직접 작곡한 채식 찬가를 불렀으며 국악예술원 원장인 한 사저는 대금을 연주했다. 세 미나를 주도한 동수도 오카리나를 연주했다. 생명과 사랑의 메시지를 실은 이 특별한 공연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채식 식당 운영자의 간단한 발언에 이어 채식 요리 비법이 소개되었다. 청중들이 가장 고대하던 순서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한 소개였다. 그후 참석자들은 채식에 관한 스승님의 강연을 보면서 사저들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 요리를 즐겼다.


전 행사장에서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재일동포 한 사람은 “오랫동안 채식을 해 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채식의 이로움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깨우침을 얻었어요.”라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모두 견본책자와 함께 ‘대안적인 삶’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을 받았다. 🦋



풍성한 채식 점심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14일, 부산 동수들은 한 사저의 비입문자 남편이 근무하는 영도구청에 풍성한 채식 점심을 마련하여 가져갔다. 동수들은 그곳 공무원들에게 채식을 대접하며 ‘대안적인 삶, 채식 생활 방식’을 소개했다. 이 특별한 점심에 모인 약 340명의 직원들은 먼저 육식의 부작용을 밝힌 SBS 방송의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했으며, ‘대안적인 삶’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채식에 대해 호평하자 구청 영양사는 우려하던 마음을 놓고 우리에게 요리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다 자주 채식 식사를 하도록 돕고자 우리 웹사이트에

서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이끌어 주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 채식의 이로움을 나눌 수 있었던 이번 기회에 대해 부산 동수들은 감사히 여겼다. 




신의 축복과 함께 탈춤 축제

안동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안동]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안동 센터는 연례 탈춤 축제에 참가했다. 백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이 멋진 기회에 동수들은 4만 장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했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며 전단을 주의 깊게 읽었다. ‘칭하이’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스승님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전단에 입을 맞추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한 동수의 아버지는 당신 친구들에게 “이분은 우리 아들 스승님이시고, 여기는 아주 좋은 단체야. 회원들이 전부 다 채식을 하고 명상을 하거든.” 하고 말하면서 스승님과 우리 단체를 소개하였다.

축제 마지막 날, 우리는 안동 센터에서 작은 비디오 강연회를 열었다. 맛있는 채식 김밥도 준비했다. 사랑을 나누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모든 동수들은 신의 축복으로 가득 느낄 수 있었으며 함께 일하며 성장하는 기쁨도 체험했다. 





일본

도쿄 채식 주간에 채식 요리 강좌를 열다

도쿄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도쿄】 올해 9월, 일본 채식인 협회는 도쿄에서 ‘채식 주간 축제(Vegetarian Week Festival)’를 열었다. 올해 특별 행사 중 하나는 ‘채식인 대회(Vegetarian Rally)’였다. 참가하는 모든 단체와 채식 상점들은 9월 달에 자체 행사를 개최하거나 자선 판매를 하게 돼 있었다. 도쿄 센터는 일요일인 9월 9일과 16일에 채식 요리 강좌를 개최해 이 행사를 성원했다.

요리 강좌에서 동수들은 만두와 어울락 요리를 시범으로 보인 후, 미리 준비한 샐러드와 탕을 먹으며 방문객들과 점심을 같이 했다. 한 참가자는 아주 기뻐하며 채식 만두가 고기 만두처럼 맛있다고 하면서 채식을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동수들은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안적인 삶’ 생활 방식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보급할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인 요리 강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도쿄 국제 채식 문화 박람회

9월 29일과 30일에 ‘2007 도쿄 국제 채식 문화 박람회(Tokyo International Vegetarian Culture Fair 2007)’가 ‘채식 주간’ 마지막 행사로서 도쿄의 요요기 공원에서 열렸다. 도쿄 센터는 행사장에 출판물 부스와 채식 음식 부스를 각각 설치해 사람들에게 ‘수프림 마스터 TV’와 스승님의 서적, 테이프 등을 소개하고 따뜻한 채식 찐빵과 소면, 여러 가지 채식 음식들을 판매했다.

부스 앞에 붙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대형 포스터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어 그곳에서 방영되고 있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




전' 프로그램을 보았다. 습하고 쌀쌀한 가을 날씨 탓에 따뜻한 채식 찐빵이 특히 인기가 좋았다. 이에 따라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식생활을 보급해 나갈 자신감과 원동력을 얻었다. 단골손님들의 대부분은 채식 생활 방식을 지지할 뿐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도쿄 동수들은 이 젊은이들도 자신들처럼 운이 좋아서 머지않아 살아 있는 스승의 인도를 받게 되길 기원했다. 



우즈베키스탄

신성한 메시지가 우즈베키스탄에 닿다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슈켄트] 포모사 동수들은 센터가 없는 나라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자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력의 결과, 9월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가로 6미터, 세로 2미터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초대형 광고판이 설치된 것이다. 이 초대형 광고판은 9월 6일부터 3개월간, 타슈켄트에서 가장 붐비는 사거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의 축복으로 비출 것이다. 하루 7만에서 11만, 한 달에 약 260만 명이 이 정보를 볼 것이라 추산된다. 



포모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매체의 지지와 인정에 감사를 표하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베이] 우리 협회에 대한 매체의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보도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황금시대 4년 (2007년) 9월 19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사랑의 바다 문예 광장'에서 열린 특별 만찬에 매체 인사들



을 초대해 스승님의 감사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저녁에는 『경제일보(經濟日報)』의 리엔치(李炎奇) 씨, 『공상시보(工商時報)』의 우바오안(吳寶安) 씨, 『중화일보(中華日報)』의 귀귀정(郭國政) 씨, 『중국시보(中國時報)』의 중셴화(鍾仙花) 양, 『타이완신생보(台灣新生報)』의 추자오형(邱兆衡) 씨, 『조달청공보(政府採購公報)』의 평윈팅(彭雲騰) 편집장과 팡웨이룽(龐維榮) 양, 『연합석간(聯合晚報)』의 우야팡(吳雅芳) 양, 『사과일보(蘋果日報)』의 천팡웨이(陳方岳) 씨가 참석했다. 이들 대부분은 처음으로 우리 협회와 이런 사교적인 교류를 가지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중화일보』의 귀귀정 씨는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몇 권 받았을 때 회사 동료들이 그 책들을 너무 좋아해서 할 수 없이 한 권만 남기고는 모두 나눠 줬야 했다고 말했다. 『타이완신생보』의 추자오형 씨는 20년 전에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후에 취재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연락할 기회가 없었다가 이번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출판 기념회로 다시 우리와 연락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 행사에서 동수들이 아주 열의에 차 있고 자질이 높은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조달청공보』의 편집장 평윈팅 씨와 『공상시보』의 우바오안 씨는 우리 단체를 매우 칭찬하면서, 다음번에는 시후 센터에서 이틀간 ‘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랐다. 『경제일보』의 리엔치 씨는 타이베이 센터인 ‘사랑의 바다 문예 광장’을 별유천지로 느꼈다. 그는 원래 일이 있어 오래 머무를 수 없었으나 그곳에 들어와 보고는 일찍 떠나야 하는 것을 아주 아쉬워했다.

좀 늦게 도착한 『사과일보』의 천팡웨이 씨는 식사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스승님을 쳐다보았다. 그는 이곳의 모든 것이 너무나 놀라우며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아주 다르다고 하면서 스승님의 일상 모습이 이처럼 소박하고 사람들을 쉽게 가까이하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 동수들 모두가 채식의 하고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로 매사를 대하는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그곳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매체 친구들은 동수들의 따뜻한 안내를 받으며 사랑의 바다 문예 광장을 둘러보았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협회에 대해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모두가 기뻐했다. 그들은 또한 좋은 소식들을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인사들에게는 9월 20일과 21일에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틈을 내어 우리와 사심 없는 토론을 한 ‘타이완 TV(台視)’의 후자권(胡佳君) 보도국 국장, ‘GTV(八大電視台)’ 청위제(程禹傑) 취재부 부장, ‘중화 TV(中視)’의 쟡시쑹(詹喜松) 보도부 부장, ‘TVBS’의 중즈펑(鍾志鵬) 취재보도 프로듀서, ‘중천TV(中天電視台)’의 티엔옌신(田炎欣) 취재부 부장과 왕이안(王宜安) 취재 팀장, ‘연합보(聯合報)’의 추광성(邱光盛) 영업국 국장 및 저우형허(周恒和) 편집장, 『건강세계



(健康世界)의 핑타이린(平泰臨) 광고국 국장, 『MRT생활신문(生活捷運報)』의 천자린(陳嘉琳) 보도부 부장, 『유페이퍼(U Paper)』의 저우주청(周祖誠) 사장, 『광고 AdM』의 천잉전(陳瑩眞) 취재 편집장, 그리고 『시보주간』의 정청통(鄭成通) 업무기획 국장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서한을 받은 많은 매체 관련 인사들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신들의 본래 의무라고 겸손히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모든 긍정적인 매체의 지지와 인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뉴스를 전하는 이런 매체들이 있기에 이 세상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욱더 많이 창출될 것이며 나아가 전세계인의 영적 의식이 고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개들과 즐거운 시간을

타이중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중] 동물에 대한 인류의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29일, 타이중 센터 동수들은 타이중 현 항구 예술 센터에서 ‘개들과 즐거운 시간을-개는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라는 연극을 공연했다. 이 연극은 스승님의 신간인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개작한 것으로 많은 관객을 끌었다. 중앙 라디오 방송의 ‘포모사 현장보도’ 진행자인 잔이전(詹以眞) 양은 이 공연의 감독 제작자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이롭고 재미있는 공연을 보기를 바라며 아울러 원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정신이 대중에게 잘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타이중 현의 다리(大里) 시 네이신(內新) 초등학교 푸주친(傅竹欽) 교장은 이렇게 말했다. “동물 사랑을 강조하는 이 연극은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 이 연극을 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분명 자비심을 갖게 될 것이며 이제부터 동물들을 특별히 잘 보호하고 사랑할 겁니다. 난 이 연극의 주제가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단원들은 전문 연극인도 아닌데도 전문 극단보다 더 훌륭히 공연해 냈습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학교에 재직 중인 한



여성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 교육이에요.”라고 말했다.

두 달 간의 집중 훈련 후 류자런(劉佳仁) 감독은 진심으로 동수들이 매우 진지하고 협조적이었다면서 지금까지 본 중에 최고의 전문 극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단원들의 마음속엔 비할 수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는 칭하이 무상사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즉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서로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이 모든 창작이 있기까지 당연히 저희에게 힘과 격려, 도움을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가장 감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시기 적절하게 감독과 작사가, 편곡자, 조명 및 무대 장식 기술자를 보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연극이라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동물들이 더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어울락


평화로운 달빛

어울락 뉴스그룹 (원문 어울락어)

[북부 어울락] 매년 음력 8월 15일인 중추절은 어울락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로 큰 명절이다. 어린이들은 이날 부모님과 친척, 선생님 등으로부터 선물과 사랑이 담긴 축복을 받기 때문에 특히 이날을 좋아한다.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22일 일요일, 이날을 경축하기 위해 북부 어울락 센터에서 청소년 동수들과 반입문한 어린이들, 방편법을 배우는 청년들을 위한 모임이 열렸다. 여러 도시에서 온 어린 입문자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춤과 노래, 재미있는 게임 등이 준비되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행복하고 평화로운 추석을 보내고 신의 빛과 은총 속에서 계속 높이 올라가기를 기원하며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보낸 축복의 인사말에서 그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이 여실히 드러났다.

순수하고 고귀한 소원은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현장은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천진한 목소리와 웃음은 어른들에게 진정한 자성으로 돌아가 신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것을 상기시켰다. 어울락과 전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언제나 기쁨과 사랑, 평화 속에서 살기를 기원한다! 




불가리아

위에서 내려다본 지구

소피아 뉴스그룹 (원문 불가리아어)

[소피아]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지구’라는 주제로 야외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매일 수천 명이 건너다니는 교통이 가장 번잡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국가문화궁(The National Palace of Culture)’ 부근의 다리에서 개최되었다.

전시회에는 30미터부터 3천 미터 상공에서 내려다본 물체들을 찍은 120장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그중 한 사진은 육식이 기후 악화를 조성하는 근본 원인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시회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 행성을 생태적인 재난으로부터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소피아 센터 동수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 ‘대단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었다. 우리는 동물 가면을 쓰고서 아주 재미있고 경쾌한 방식으로 불가리아 동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세계 위성으로 방영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스 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으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곧 9개 위성을 추가해 **전세계로** 방송된다. 11월 6일부터 아시아, 호주, 남미, 북미, 아프리카 전역, 중동 지역이 종일 방송되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세계 시청자들은 유럽의 핫버드 6 위성과 아스트라 1 위성 외에 아래의 위성으로 시청할 수 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16일 첫 방송

북미	서경 97° 갤럭시(Galaxy) 25
남미	서경 30° 히스파셋(Hispasat)
	서경 27.5° 인텔셋(Intelsat) 907
아시아.....	동경 75° 에이비에스(ABS)
	동경 100.5° 아시아셋(AsiaSat) 2
	동경 105.5° 아시아셋(AsiaSat) 3S
호주, 뉴질랜드	동경 152° 옵투스(Optus) B3/ D2
중동, 북아프리카	동경 25.5° 유로버드(Eurobird) 2
아프리카.....	동경 68.5° 인텔셋(IntelSat) 10

현재 방송 중인 위성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동경 13° 핫버드(Hotbird) 6, 동경 19.2° 아스트라(Astra) 1

전세계 모든 곳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빛을 가져다준 신의 무한한 자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지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보내진 이 최고의 사랑의 선물을 함께 나눌 기회를 가지기를 기원한다.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한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반응

미국 일리노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 금시대 4년(2007년) 10월 6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대신하여 미국 일리노이 센터 동수들은 항목별 광고 회사(Classified, Inc.)의 운영 이사이며 『비즈니스 위크 마켓플레이스(Business Week MarketPlace)』의 대표인 미셸 밀러(Michele Miller) 여사를 방문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홍보하고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그녀와 그 회사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밀러 여사는 2007년 5월부터 『비즈니스 위크 마켓플레이스』에 우리 광고를 네 차례 실으면서 비영리 단체 특혜가인 52퍼센트 할인을 제공한 것 외에도,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광고를 최우선 순



위로 다섯 차례나 무료로 실어 주었다.

우리는 미셸 밀러 여사의 관대한 지원과 고귀한 본보기에 감사를 표시하는 마음에서 그녀에게 우리 협회의 감사장과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에는 스승님의 여러 책과 다른 출판물, 꽃 화분, 그리고 집에서 직접 정성스럽게 구운 호박 빵과 ‘감사합니다’라는 글자가 새겨진 케이크, 초콜릿 같은 비건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셸은 감사장과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뻐했다. 그녀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을 돕고 싶어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건 저에겐 아주 쉬웠어요. 17년 동안 대중매체 사업에 몸담아 온 것 이외에도 저는 건강 컨설턴트이면서 평화롭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언론 방송계에서, 적어도 저의 영역에서는 한 번도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채널처럼 비범한 채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일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쉬웠지요. 지금 전파되고 있는 그 소식은 반드시 알려져야 할 소식이라고 전 믿어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얻는 메시지는 아주 부정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믿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죠. 저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내보내는 메시지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 방송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매체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알게 되었거나 시청해 본 사람들이 대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그 속에서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보다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녀는 이런 일을 하시는 스승님의 헌신과 사랑에도 감사드렸다.

선물을 전달한 후, 동수들은 미셸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만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한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신의 축복이라고 느꼈다. 매체 내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고귀한 삶의 방식을 계속 격려하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들을 읽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한다면 이 세상은 분명 모든 존재에게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



항목별 광고 회사의 경영 책임자인 미셸 밀러 여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진동

베르나르 사형 / 프랑스 (원문 영어)

나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른 파동과 밀도를 가진 ‘진동’이라는 걸 알고 있다. 온 우주는 상호 의존적이다! 내 두뇌가 그 사실을 알고 내 마음, 내 영혼이 그것을 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항상 집에 켜 놓으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두뇌는 그 말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보다 깊은 의미를 이해한 건 아니었다.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http://SupremeMasterTV.com>

나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에게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가족 중에는 입문자는 없지만 몇몇은 채식을 하고 명상을 한다. 그들 모두 이 새로운 채널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나는 신학과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기공을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처음에 텔레비전을 연결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제목과 프로그램 편성표만 읽어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이 세상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훌륭한 선물이라고 하셨다. 아버지의 아내는 이 새로운 진동에 아주 감동한 나머지 www.godsdirectcontact.org 웹사이트에 들어가 더 많은 내용을 알아보고 즉시 동수가 되고 싶어했다. 그녀는 ‘살아 있는 스승’을 알게 되어 매우 흥분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긍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 뜻을 이해해야 할 것 인지를 마침내 알게 되었다. 그냥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실제 효과였던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이 그러한 진동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보았다. 그 이후로 집에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거의 항상 켜 있게 되었고 나는 있는 힘껏 스승님의 ‘대안적인 삶’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소식을 퍼뜨 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버지의 말은 나의 가슴과 영혼을 감동시켰다. 왜냐하면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지만 그때는 단지 내 두뇌에 만 와 닿았고 그래서 내 존재의 아주 얇은 차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다. 스승님, 당신의 지혜와 끊임없는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과 영혼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니

핑안 동수 / 미국 (원문 영어)

전에는 이 세상의 이방인이라 느끼곤 했기에
당신을 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활기찬 뉴스를 시청합니다.
거리를 걷다가
지나가는 버스에서
당신의 커다란 포스터를 보고

신문을 펴면
당신이 꾸미신 찬란한 광고를 읽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당신의 화신을 봅니다.
(수행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제는 낯설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내면과 외면으로 여기에 계시기에!

스승님의 사랑 어린 경고

아그네스 디사/ 아프리카 베냉 아보메 (원문 영어)


나는 내 어머니의 열세 자녀 중 한 명이고 아버지의 스물다섯 자녀 중 한 명이다. 아버지는 모든 전통 치료사들의 수장이고 우리 가족의 가장이며 베냉 왕국의 아보메 기사 중 첫 번째 기사이셨다. 어머니의 생존해 있는 열두 자녀 중 나를 제외한 전원이 관음법문에 입문했다.

나는 전에 우리 마을에 있는 한 식당 근처에서 채식이 아닌 음식을 팔았다. 하루는 내가 음식을 팔고 있을 때, 아름다운 차림새에 피부가 하얀 여자 분이 나에게 음식을 사려고 왔다. 그녀는 내 술을 열어 계란과 고기, 생선, 밥, 콩, 파스타를 보더니 나에게 콩 요리를 원한다는 몸짓을 했다. 그녀는 국도 마다하고 아주 딱딱하게 조리된 콩만, 그것도 소금도 없이 먹었다. (그 콩은 보통 밥과 고깃국과 같이 먹는다.) 콩 요리를 먹은 후 그녀는 걸어 나갔으며 멀리 사라졌다.

그 일이 있는 지 얼마 후에 나는 여동생의 목걸이 사진에 있는 여인이 그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제야 나는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여동생은 나에게 나타났던 분이 바로 칭하이 무상사이며, 어찌면 나에게 경고를 하거나 장래의 업장을 털어 주기 위해 나타났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병이 들었고 열기가 내 몸에 나쁜 영향을 주니 요리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때부터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렸다. 더 이상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았다. 우리 형제들처럼, 나도 이젠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간절하게 입문을 기다리고 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나의 동생에게 내가 이제는 큰누나일 뿐만 아니라 '채식 클럽'의 일원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신동한 방법

칭하이 무상사/ 2007. 8. 22.
프랑스 파리 유럽 선삼 (원문 영어)

한 남자가 슈퍼마켓에서 아름다운 여자에게 다가가더니 “여기 슈퍼마켓에서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몇 분만 저랑 얘기해 주시겠어요?”라고 요청했어요. 그 여자가 이유를 묻자 그가 말했지요. “내가 예쁜 여자와 얘기를 할 때마다 아내가 어디선가 나타나거든요.” 



스승님의 농담 



고양이들의 용감한 구원자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뒤 즈롱(多姿融) 양은 다우르족 아가씨로 1969년 내몽골에서 태어났다. 약 10년 전부터 그녀는 버려진 개와 고양이들을 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2백 마리가 넘는 집 없는 작은 동물들을 입양했다. 최근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고양이 매매업자들에게서 1,300마리가 넘는 떠돌이 고양이들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 7월 6일, 뒤 양은 그녀의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고양이 매매 트럭들이 주차를 하는 차량 공원으로 가 보았다. 그곳에서 다른 도시 식당으로 보내질 참이던 엄청난 수의 고양이들을 발견한 그녀는 단호한 태도와 지혜로운 협상으로 840마리의 생명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로부터 20일 후,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양이 매매업자가 또 다른 고양이 한 트럭을 운송하려 한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 그녀는 즉시 현장으로 가 장래 시어머니가 될 분의 도움을 받아 480마리가 넘는 거리의 고양이들을 또 구출했다.

그녀의 자비로운 행동은 많은 동물 애호가들을 감동시켰으며 그들 중 몇 명은 자발적으로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입양해 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전히 천 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이 그녀의 집에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고 있다. 매일 그녀는 개와 고양이를 위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주변을 청소하고, 의사에게 고양이들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수술하고 링거 주사를 놓아 달라고 요청하느라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내지 못한다. 최근에는 동물들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 세 명의 경비와 두 명의 청소부를 고용했는데, 그 모든 비용은 경제학자인 남자 친구 류 씨가 부담하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8월에 뒤 양의 집을 방문해 스승님의 사진과 출판물을 주었으며 채식 고양이 사료도 소개해 주었다. 채식인 뒤 양은 매우 기뻐하면서 자기 고양이와 개들도 채식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말로 그들 모두 사랑스런 채식 귀염둥이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녀는 엄청난 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식품 값을 줄이기 위해 개와 고양이를 위한 채식 사료를 제조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이 아름다



수의사가 고양이를 돌보고 있다.

운 다우르족 아가씨는 아주 인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 또한 우리에게 매우 깊은 감동을 주었다.

뒤 양은 칭하이 무상사의 결립없이 자유자재한 풍격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스승님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찬탄했다. 그녀와 남자 친구인 류 씨, 두 사람 모두 스승님께서 디자인하신 개집을 아주 좋아했다. 그들은 환경 의식이 높아서 개와 고양이에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의 소망은 자신들이 돌보는 애완동물의 생활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스승님의 신간인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훑어보면서 뒤 양은 스승님의 개들이 영성이 높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입양된 개와 고양이들도 영성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녀의 자비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는 모든 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



동수들이 뒤 양(왼쪽)에게 사료를 기증하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인터뷰하는 뒤즈름 양.

모비나 제퍼 상원의원:

평화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다

플로렌스 에티엔느 사저 / 캐나다 밴쿠버 (원문 영어)

“나는 우리가 평화의 언어로, 그것도 상대의 언어로 얘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 모비나 제퍼(Mobina Jaffer)

언어와 평화는 보통 같이 언급되는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모비나 제퍼 상원의원은 우리와 가진 친숙한 인터뷰에서 그것들을 연관시키길 주저하지 않았다. 매력적이고 뛰어난 변호사이며 깊은 자비심과 관대한 마음을 가진 제퍼 여사는 법률, 정치, 평화 중재, 사회 정의, 지역 사회, 여성 난민 변호 등의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것들은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베품으로 이익을 준 몇몇 소송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우간다에서 태어난 제퍼 의원은 난민의 곤경을 몸소 겪었다. 캐나다와 영국에서 법률 공부를 마친 뒤, 그녀는 캐나다의 이민 규정과 절차에 초점을 맞춰 난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 개혁을 제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성 난민과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다루는 특수한 의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스라엘과 다르푸르 같은 곳에 가서 평화를 촉진하는 일도 했다.

이 상원의원은 캐나다의 수많은 단체에 참여해 일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 ‘캐나다 YWCA’, ‘아가칸 국가조정중재 위원회(Aga Khan Nation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Board)’, ‘캐나다 학대 여성 심사위원단(Canadian Panel on Violence Against Women)’, ‘새로운 문 갱생 보호소(New Door Transition Home)’, 다문화주의를 촉진하는 단체인 ‘헤이스팅스 연구소(Hastings Institute)’, ‘브리티시 컬럼비아·유콘 지역 이민·소수민 여성 기구(The Immigrant and Visible Minority Woman of British Columbia and the Yukon)’ 등이 그것이다.

제퍼 의원은 사람들 간의 나눔과 이해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해줄 충고가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교육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면 나는 어떤 젊은이에게라도 두 가지를 말해 줄 겁니다. 하나는 구걸하든 빌리든 최고의 교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고 친지들에게 빌리세요. 여러분은 그것의 열 배를 갚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단하지 말고 여러 언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은 언어를 알게 될수록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의 언어로, 그것도 상대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나는 더 많은 언어를 배울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봉사과 헌신의 정신으로 대중의 이익을 그 무엇보다 앞세우는 이런 자비롭고 모범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캐나다다는 정말 축복 받은 나라이다. 🦋

제퍼 의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parl.gc.ca/common/senmemb/senate/isenator_det.asp?senator_id=168&sortord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 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받고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은 인류를 위해 밝은 미래를 창조하고자 애쓴 탁월한 노력과 깨달은 지도력을 표창하고자 칭하이 무상사께서 수여하는 영광으로서, 전세계의 정부·지도자·개인 자선가들의 보범적인 선행과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찬사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전달된다. 하트 평점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장려하기 위해 신이 보내시는 사랑의 상징이다.

연안 조류들에 대한 산콕의 자상한 사랑과 보살핌 ♥♥♥♥♥

케이프타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16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들은 남아프리카 연안의 조류를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온 '산콕(SANCCOB: 남아프리카 국립 연안 조류 보호 재단)'에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하고 미화 2천 달러와 칭하이 무상사의 여러 출판물을 기증했다.

산콕은 국제협회에 보낸 감사 편지에서 그 후 원금이 멸종 위기에 놓인 아프리카 펭귄을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후원금은 산콕의 구조 운동 하에 2006년 말과 2007년 초 다이어(Dyer) 섬과 로벤(Robben) 섬에서 받은 어미 잃은 850마리의 어린 펭귄을 구하는 데 쓰였다.

산콕은 39년 전, 케이프타운의 클레어몬트에 살고 있던 고(故) 엘시아 웨스트팔(Althea Westphal) 여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녀는 엄청난 숫자의 아프리카 펭귄들이 해변으로 밀려왔는데도 그들을 구해서 돌봐 줄 단체가 전혀 없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68년 4월, 에소에센(Esso Essen) 호의 원유 15,000톤 유출 사건으로 인해 3,000가 넘는 바닷새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는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건이었다. 웨스트팔 여사는 자기의 집에 임시 수용소를 마련해 심하게 기름 범벅이 된 60마리의 펭귄을 돌보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녀는 욕실에서 한 번에 세 마리씩 썬라이트(Sunlight) 비누로 비누질을 한 다음 호스로 헹궜다. 그들

산콕의 본부에 있는 풀장에서 우아하게 수영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펭귄.



산콕의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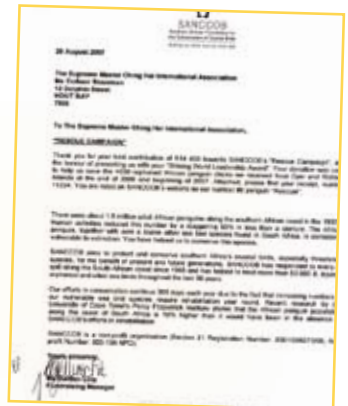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의 생존 확률은 반반이었다. 최초의 펭귄 수영장은 그녀의 정원에 있는 목조 트레일러였는데, 그후 그녀는 스테인리스제로 된 거대한 염색용 통을 구했다. 펭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녀의 트럭을 타고 블라우베르거(Blaauwberg)로 가서 그곳 해변으로 걸어 내려가 조수 때 생기는 웅덩이에서 한 시간 동안 해염을 쳤다. 그들이 수영을 마치고 나면 그녀는 다시 집으로 싣고 와 먹이고 돌보면서 그들이 야생으로 돌아갈 정도가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다.

현재 산콥은 케이프타운 서부 해안인 테이블뷰(Tableview)의 리트브레이(Rietvlei)에 있는데, 처음 자리를 잡은 이래로 줄곧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소수의 상근직 간사를 두고 있고 협조가 필요할 경우, 특히 대규모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원 봉사자들에 의존한다. 2000년도에 연안 지역에 심각한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천 명의 봉사자들이 아프리카 펭귄을 돌보고 자원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2만 마리 이상이 성공적으로 회복되었다. 케이프타운 대학의 '퍼시 피츠패트릭 연구소(Percy Fitzpatrick Institute)'가 행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연안의 아프리카 펭귄의 숫자가 19% 증가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산콥의 갱생 노력이 없었더라면 달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과 미화 2천 달러의 수표를 들고 있는 산콥의 직원.



산콥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 보내온 감사 편지.

바닷새, 특히 아프리카 펭귄 중 바다표범과 상어의 공격을 받아 다쳤거나 조류 말라리아 등과 같은 자연 질병에 걸렸거나 부모를 잃은 어린 새이거나, 무엇보다 장단기에 걸친 크고 작은 기름 유출로 인해 오염된 새들이 산콥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

연안 조류 친구들에 대한 산콥의 헌신적이고 자상한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를 보낸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종(種)을 알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www.sanccob.co.za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수상자

9월 수상자나 이전 수상자를 보시려면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uprememastertv.com/AwardOfTheMonth.html>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녹색 혁명의 아버지

-노먼 볼로그 ♥♥♥♥♥♥♥♥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뛰 어난 농학자인 노먼 볼로그(Norman Borlaug) 박사는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17일에 열린 시상식에서 '영예 미국 의회 메달'을 받았다. 식량 경작과 수확량을 향상시킨 필생의 업적을 기려 미국 시민의 가장 영예로운 상이 93세의 볼로그 박사에게 수여된 것이다. 그가 개발한 기술은 수백만 명에게 식량을 가져다주었고, 그는 이제까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공헌했다.

볼로그 박사는 1942년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멕시코에서 농업 연구직에 종사하였다. 절박한 식량



1964년, 멕시코에서 밀 육종을 연구하고 있는 볼로그 박사.

부족 사태에 직면한 그는 산출량이 많고 질병에 강한 개량 밀을 개발하였으며 생산 기술을 보급해 위기를 완전히 전환시켰다. 실제로 그가 멕시코에 온 지 몇 년 만에 그 나라는 처음으로 밀 수출국이 되었다. 이러한 성공을 보고서 식량난에 직면해 있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볼로그 박사에게 그 전문 기술을 그들 국가에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의 노력으로 이들 국가의 밀 생산량은 거의 두 배가 되었고, 이들 나라의 식량 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녹색 혁명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얻었고 이어서 197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사람들의 기본 요구 충족이 보장되는 평화적인 번영을 향한 농업과 인도주의 방면에서의 탁월한 노력,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애쓰는 헌명한 지도력을 표창하고자 스승님께서 볼로그 박사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하셨으며, 그는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이상을 받았다. 볼로그 박사의 건강을 기원하며 인류의 발전을 위한 그의 평생에 걸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

<http://www.reuters.com/article/domesticNews/idUSN1723204420070717>
http://www.livinghistoryfarm.org/farminginthe50s/crops_15.html



헌신적인 동물 애호가인 ‘빛나는 세계 사진상’을 수상하다

한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헌 신적인 동물 애호가이자 사진 작가인 모하멧 샤히둘라 (Mohamed Shahidullah) 씨가 최근 칭하이 무상사로부터 ‘빛나는 세계 사진상’을 받았다. 이 상은 그의 사람들을 일깨우는 비범한 사진 재능, 동물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자비를 베푸는 사심 없는 행동, 그리고 세계와 전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의 관대함을 표창하고자 수여되었다. 칭하이 무상사는 그가 동물들을 보살피는 고귀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2천 달러의 상금도 주었다.

샤히둘라 씨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저임금 노동자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면서 직장에 다닌다. 비록 돈 한 톨 모으지 못했지만, 지난 8년간 그는 절망적인 상황의 동물들을 먹이고 도왔다. 현재 약 110마리의 고양이와 10마리의 개 이외에 많은 새들까지 돌보고 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동물 친구들을 먹이는 데 쓴다. 자신이 먹을 음식이 없을 때조차 그는 동물 친구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고 느낀다.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은 그를 ‘고양이 아빠’라고 부른다. 사실 그의 동물 친구 중 몇몇은 이 인간 아버지가 영양과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하루도 살지 못할 것이다. 매일 그 많은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샤히둘라 씨의 위대한 헌신이 필요하다. 그의 이러한 희생과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물 애호가로서 저는 동물이 삶의 아름다움을 대표한다고 느낍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어요. 전 동물 없는 이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상과 행동을 그다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고귀하고 자비로운 선행이 계속됨에 따라 그들도 동물을 사랑하고 보살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랑의 행동은 지역 신문에 “샤히둘라 씨는 인간과 동물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놀라운 공존을 보여 주는 완벽한 모범이다.”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그가 거리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는 개들이 급히 달려와 강도를 쫓아버리기도 했다.

샤히둘라 씨는 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동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매우 재능 있는 사진 작가이다. 그의 사진들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여러 다른 종의 동물들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모습을 담아낸



모하멧 샤히둘라 씨가 찍은 사진.





빛나는 세계 사진상

다. 그의 사진 속에서는 새가 고양이에게 입맞춤을 하고 개가 어미처럼 고양이를 껴안고 보살피며 새끼 고양이와 아기 새가 친구처럼 함께 앉아 있다. 그의 아름답고 예술적인 작품들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동물 반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끔 해준다.

그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열광적인 팬이기도 하다. '수프림 마스터 TV'는 방송이 시작된 이래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채널이 되었으며, 그는 매일 고양이, 새와 함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즐겁게 시청한다.

칭하이 스승님이 주신 자애로운 상은 그에게 너무나 의미가 깊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자상한 글로 답례를 했다.



⇒ 모하멧 샤히둘라 씨와 친구들이 수상을 기뻐하다.

⇐ 동물에 대한 그의 자비로운 행동을 소개한 지역 신문.



존경하는 칭하이 무상사께,

공경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상패와 DVD, 스승님의 전기가 실려 있는 아름다운 책, 그리고 미화 2,000달러를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당신이 주신 상으로 저는 동물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는 순간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중한 '빛나는 세계 사진상'을 주신 스승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스승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모하멧 샤히둘라 드림

후기:

모하멧 샤히둘라 씨의 고귀한 행동을 접한 홍콩 동수들은 즉시 채식 사료인 '라이블리 도기(Lively Doggie)' 100포를 보내서 그의 동물 친구들에게 보다 우수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했다. 🦋



보병 태양열 온수기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1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대표는 중국 산시(陝西) 성을 방문해 마옌전(馬彦軍) 씨에게 '발명 영웅상'을 수여했다. 산시 성 북쪽 미즈 현에 살고 있는 농부인 마옌전 씨는 버려진 맥주병을 사용해 태양열 온수기를 만들었다. 현재 치차오 마을의 20가구가 이 발명품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태양열만 있다면 제가 발명한 온수기가 10분 만에 물을 데워 줄 겁니다."라고 말했다. 4년의 노력 끝에 발명한 이 특별한 온수기를 그는 '보병(寶瓶) 태양열 온수기'라고 이름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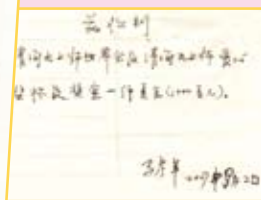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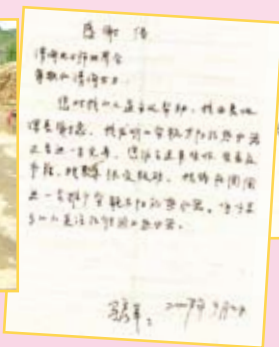
마 씨의 어머니는 2003년부터 관절염이 생겨서 목욕하려면 따뜻한 물이 필요했다. 장작과 쪼으로 물을 데우기가 불편해서 그는 효율적인 온수기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여 실험을 했다. 검은 비닐봉지와 의료용 링거 주사병을 사용하여 만든 온수기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결국 많은 시도와 개선을 거친 뒤에 맥주병으로 그가 원하던 결과를 얻어 냈다.

마 씨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저렴한 온수기를 사용하고 너무나 기뻐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개하였다. 이 온수기는 66개의 맥주병을 6개씩 묶어서 만드는데, 조립하는 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고 매일 세 사람이 쓸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에너지가 절약되고 편리하다. 이 온수기를 써 보고 그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마 씨는 우리에게 온수기 조립법과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으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이제 마옌전 씨의 온수기 제작 기술은 더 진보하여 전용 드릴까지 발명해 냈다. 이 온수기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는 원하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있는 마옌전 씨(오른쪽).



마옌전 씨가 보내온 '감사 편지'와 칭하이 무상사에게서 수여한 상금 천 달러에 대한 영수증.

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기꺼이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 '보병 태양열 온수기' 제작 기술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전수하는 것이다.

마에켄 씨는 칭하이 무상사께서 ‘발명 영웅상’을 수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랍고도 기쁜 마음으로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그는 “칭하이 무상사님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온수기를 더욱 개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가 이 영예로운 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지구를 이롭게 하는 놀라운 발명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희망했다.

주: ‘보병 태양열 온수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물통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금속통이고, 두 번째 부분은 재활용된 맥주병, 세 번째 부분은 호스와 연결용 고무 패키징이다. 온수기를 만들려면 우선 각각의 병 바닥에 구멍을 뚫고, 그 다음 호스와 패키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마음대로 조립해도 되는데 한 세트에 6개씩 배열하여 총 66개의 병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병을 조합할 수도 있다. 🦋



주요 연락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 · SM 보석 · 천의 · 만세등 ·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적합 기술 캠퍼스 센터

홍콩 뉴스그룹 (원문 영어)

건 강한 행성과 그에 대한 윤리적인 대우는 미국 캘리포니아 홈볼트 주립대학의 ‘적합 기술 캠퍼스 센터(Campus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CCAT)’ 학생들의 가치 기준이다. CCAT는 20년째 지속 가능한 생활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이바지해 온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생활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고 건강한 행성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증명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활’은 어떠한 천연자원도 고갈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생활 방식이다.

CCAT는 지속 가능한 생활을 실험해 보는 집이자 교육 센터이다. CCAT는 1978년, 교직원과 학교 당국의 지지를 받아 일단의 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CCAT는 폐기물을 만들지 않으며 보통 미국 가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5%도 안 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실제화된 많은 적합 기술로는 태양열 및 풍력 발전 시스템, 태양열 온수 시스템, 태양열 식품 조리기, 바이오 연료 정제 장치와 유기농 허브, 야채 및 천연 식물 정원이 있다. CCAT는 또한 짚단과 옥수숫대, 대나무 같은 재료를 이용한 대안적 건축 기술을 보여 준다. CCAT는 학생과 강습반, 일반 대중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CCAT는 또한 전기 그리드를 완전히 배제하고 태양열 패널과 풍력 터빈, 바이오 디젤 발전기에 의존한다. 일반 가정에서 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여기에 소개한다. 1) 태양열 패널: 설치 비용이 비쌀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 시 초기 비용 이상으로 절약된다. 흐린 날에도 작동한다. 2) 보냉 상자: 겨울에 냉장을 요하는 대부분의 음식을 보관할 수 있으며, 여름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보관하기 좋다. 3) 보온 상자: 요리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줄 수 있다. 4) 반사경 조리 기구: 태양빛을 직접 빔에 모아서 레인지처럼 사용할 수 있다. 5) 절전 형광등: 보통 백열등의 약 1/4의 전력만을 사용한다.

현재 CCAT의 공동 소장인 에디 테너(Eddie Tanner)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환경의식을 가지고 결정하기 시작할 때, 정부의 정책도 그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기 요금이나 쓰레기 양을 줄일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시도해 본 다음에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시오.” 🐦

(‘지구지키미 영웅-CCAT’에서, <http://www.humboldt.edu/~ccat/faq.html>)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보다 문제를 아는 것이 더 좋다


칭하이 무상사/ 2007. 8. 23.
프랑스 파리 유럽 선삼 (원문 영어)

한 아라비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모하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사(Issa)의 아들이었고, 당시 어느 종교 단체의 수장과 매우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는 거물이었고 언제나 아주 부유했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생각도 민첩하고 말도 아주 잘하는 달변가여서 그 당시 모든 이들의 위에 있었어요.

하루는 그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갖가지 아름다운 천과 아름다운 양탄자와 금

으로 치장을 하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가고 있었지요. 많은 시종들이 그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숭배하고 찬탄했는데 행렬이 아주 장엄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물었지요. “저 사람이 누구지? 저렇게 눈부시게 치장하고 말 탄 모습도 훌륭한 데다 저렇게 부유했고 장엄하다니.” 그때 절뚝거리며 걸어가던 한 노파가 말했어요. “아니야,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는 부유하지 않아. 알라가 그에게 복을 내리길 거부했거든. 그래서 그가 저토록 허영을 부리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이사의 아들 모하멧은 즉시 그 호화로운 말에서 내려와 과연 그 말이 맞다며 자기 처지가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외적인 과시와 부를 버리고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면서 신을 알고자 몰두했습니다.

그는 행운아였어요. 그렇죠? 그는 운이 좋았기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를 안은 채 죽지요. 





숭고한 품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

칭하이 무상사/ 2007. 8. 22.
프랑스 파리 유럽 선삼 (원문 영어)

숭고한 품성(Noble Quality)은 IQ와 같아서 그 또한 연습하면 키울 수 있습니다. 인간 품성(Human Quality)은 보통 주어집니다. NQ, 즉 숭고한 품성도 태어나기 전에 주어집니다. 전생에 얼마를 남겨 놓았는가에 따라 그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스미스 씨나 함부르크의 물러 부인에게 남다른 편애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견 달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 생에서 남은 NQ가 3%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일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던 거지요. 누구에게든 사랑이나 자비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어

쩌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 사람이 없었거나 자비로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사귀으로써 격려를 받거나 훈련이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의 NQ가 그 이상 더 발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자비심을 일깨울 어떤 상황에도 처해 본 적이 없었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지만 그것을 보여 줄 어떤 상황에도 놓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비심은 발현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런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깐요. 그러니 어떻게 자비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신이나 부처 혹은 신의 아들도 보기 위해선 여기로 내려와야 합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쁨에 차고 행복하고 평화롭지요. 그래서 자비심을 계발하길 원한다면 오직 이 세상, 물질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혹은 지옥에서 가능할지도 모르지요. 변호사가 감옥에 가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요.

어쨌든, 어떤 남자나 여자가 과거에 동물이었다고 칩시다. 생존을 위해서 살생을 해야 하는 육식 동물같이 NQ가 낮은 동물이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런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NQ가 낮습니다. 코끼리 같은 아주 평화로운 동물은 NQ가 30%나 되지만요! 그래서 NQ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진 고정 자산, 즉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본금'을 받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태어나서 그 이후로 줄곧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해 몇 배로 키우거나 극대화시키지 않는다면 3, 4%, 혹은 여러




분이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수준 이상으로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NQ는 3, 4,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태어날 때 그만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지고 태어나선 그것을 계발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 겁니다. 계발시킬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불우한 사람들의 고통을 더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자비심이 더욱더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그 동물, 그 상황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겠지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NQ가 자라는 겁니다. 은행 이자 늘 듯이요.** 여러분은 갖고 있는 자본금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은행에 넣어 두기만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나면 더 불어나지요.

그처럼 HQ와 NQ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품성은 타고나는 거지만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일이지요!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돈하고는 달라요. 돈은 주면 줄수록 점점 더 없어지지요.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서 쓰면 쓸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성인들은 평범한 사람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300%의 NQ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단지 3, 4, 5, 6, 10%, 혹은 15, 20, 30%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아주 좋은데 여러분은 그것을 발전시켜 가고 있지요.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NQ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같지요. 만약 어떤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NQ는 더 낮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하겠지요. 여러분이 숭고한 가르침을 접하고, 그래서 그 방법을 알게 되고, 실천까지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실체가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나중엔 진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접하게 되면 정말로 뭔가 하고 싶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정말 사랑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NQ가 발아하여 점점 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최소한 뭔가 하긴 해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많이 동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고통 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입장을 한 번 바꿔 놓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주 분명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 다쳤다면 당연히 약이 필요할 것이고, 집을 잃었다면 물론 텐트라도 필요하겠지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물과 옷도 원할 겁니다. 입장만 바꾸어 보세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느낌이 들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느낌은 아닐지라도 서로를 더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하나가 될 것이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점점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고통스럽지 않도록 신은 어느 정도에서 쉴 틈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모든 당사자와 똑같이 극도로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지위, 또는 상속이나 전통에 의해서 주어진 지위에만 있다면 그들의 숭고한 품성이나 자비심은 계발되지 않습니다. 자비심이나 숭고한 품성은 실제 생활에서 실제 행동으로, 실제로 고통을 겪어야 생깁니다. 자신의 고통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숭고한 품성이 계발될 것입니다.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동정심,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의 NQ에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롭기만 한 것이니까요. 



교실에서의 영성 교육

완전한 하늘 사형 / 포모사 신주 (원문 영어)

황 금시대 2년(2005년)부터 나는 5세부터 11세가량의 어린이들을 가르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나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교실에 영성의 이념을 소개하려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한다.

처음 맡은 학급은 5세에서 7세까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한 학기 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위해 스승님의 그림인 '천국의 꽃'을 교실에 걸어 두었다. 어느 날 아이들에게 그 그림을 소재로 하여 스케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환상적이었다. 또한 스승님의 만화집인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도 교실에 두고 학생들이 읽고 다채로운 삽화도 감상하게 했다.


나는 종종 기회 닿을 때마다 아이들과 채식주의에 대해 토론을 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과일의 사명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과일은 행복해한다는 것이었다. 또 고기를 먹을 때는 죽은 동물의 슬픔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으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데도 동의했다.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종종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놓고 토론하기 전에는 어떠한 마찰도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학부모와 교장 선생님에게 알려야 한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 과일을 가져오도록 권했는데, 학부모들이 이 생각을 지지해 주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과일을 나눠 먹으며 다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좀더 큰 아이들은 더 깊이 있는 주제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8, 9세 아이들의 학급에는 '식물 에너지 식당'은 이름의 과학 활동을 만들었다. 우리는 다 같이 채식 표지판과 채식 메뉴를 준비해 수업 중에 플라스틱 화폐를 사용해서 견과류, 과일, 야채, 빵, 주스를 팔았다. 정말 멋졌다! 학부모의 지지로 이 수업은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다음 학기 사회책에는 '일'이라는 장이 있었다. 우리 반은 이 기회에 채식 음식을 판매하려는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우리가 채택한 방법은 학교 안에 '100% FuN 가게'라는 건강식품점을 만드는 것이었다. 'F'는 과일(fruit), 'N'은 견과류(nut)를 의미했다. 나는 말린 과일(대추야자, 망고, 블루베리)과 소금을 치지 않은 견과류(캐슈넛, 아몬드, 마카다미아) 등을 가게에 진열했다. 아이들은 포장용 하고 무게를 달고 작은 식품 봉지에 라벨을 붙였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설탕·소금·기름으로 가공된 간식 대신, 우리 '어린이를 위한 건강 간식'과 '무설탕 간식'이라는 이름을 내세웠다. 이번에는 진짜 돈을 사용했다. 우리는 수익의 절반을 자선 단체에 기부했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파티를 열었다. 학생들은 아주 좋아했으며 나도 그랬다. 그들은 '대안적인 삶'의 식품을 팔았고 사업하는 경험을 해보았으며 불우한 사람들과 돈을 나누며 기분 좋아했다. 체험은 언제나 가장 훌륭한 교사인 법이다.

다음 학급은 10세에서 11세의 아이들이었다. 우리 과학책에는 '별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한 과학자에 대한 단원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 뉴스잡지에 추천된 바 있었던 영화 '콘택트'를 보았다. 주인공의 영혼이 기계를 통해 다른 차원으로 여행을 하는 동안 신체는 여전히 지상에 남아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그녀의 신체가 지구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한 소녀가 머뭇거리지도 않고 말했다. "그녀의 내면만 갔을 거예요!" 나는 그 아이의 대답에 놀라고 기뻐했다. 영적인 영화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구다.

우리의 다음 주제는 자원 봉사였다. 학교 주변의 유기견들을 돕기로 결정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했다. 음식을 준비해 거리에서 개들에게 밥을 먹이는 한편 시의회에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쓴 것이다. 며칠 뒤 시의회 의원이 학교로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에게 아이들의 이상과 진실한 마음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실천하는 사랑은 언제나 놀랍다.

나는 좀더 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속에 있는 이상들을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영감을 주는 일임을 알았다. 이것은 학습을 재미있게 하며 그들 마음속에 선과 미덕이라는 씨앗을 보다 쉽게 심어 준다. 황금시대에 걸맞은 고귀한 이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스승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 



행복 수업이 영국 학교에 개설되다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2 006년, 영국의 일류 사립학교인 웰링턴 대학(Wellington College)이 14세에서 16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한 번씩 '행복' 수업을 개설했다. 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교과 과정으로, '행복 과학'의 선도적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캠브리지 대학의 닉 베일리스 박사(Dr Nick Baylis)와 웰링턴 대학이 공동 기획한 것이다. 총장인 안토니 셀던(Anthony Seldon)은 행복 수업이 행복하고 안정된 청년들을 배출하는 학교의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켜 줄 것이라 믿고 있다.

14세의 아이들은 자기 미래에 대한 의문과 큰 시험에 직면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돈, 명성, 물질 재산에 의해서도 혼란을 겪는다. 청소년은 현대 생활의 압력을 균형 있게 바라볼 줄 아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아주 빨리 그에 압도될 수 있다. 행복 전문가인 베일리스 박사에 의해 개발된 행복 수업은 십대들에게 '건강, 성취감, 지속적인 동료애와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융성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 주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본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긍정적인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들은 술이나 마약, 텔레비전, 과식은 일시적인 만족감만 줄 뿐, 금방 사라져 버리며 그들을 더 나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배운다. 베일리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청소년들이 행복은 소모되는 게 아니라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수업은 또한 아이들이 인생에서 겪는 나쁜 경험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베일리스 박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학생들이 란스 암스트롱(고환암을 극복하고 '투르프랑스 경주'에서 우승한 미국의 자전거 선수)과 같은 사람들을 모범 삼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통과 분노를 참고 견뎌냈으며 그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 낸 인물이지요." 베일리스 박사는 이러한 교과 과정이 십대들로 하여금 학교 안팎의 상황을 보다 잘 대처하고 이후에 성인이 된 삶에서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웰링턴 대학의 총장인 셀던 씨는 지금 1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낳은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감정적인 면에서 자주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데 좋은 경험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이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웰링턴 대학에서 행복 수업을 받고 있는 16세의 올리 마저트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 수업은 평온의 샘이에요. 그 수업은 항상 행복 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쳐 주지요."

2007년 9월, 영국의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공립 중등학교에서 행복과 웰빙, 예의에 대한 교과 과정이 개설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실 SEAL(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Learning: 학습의 사회적·감정적 양상)이라 알려진 대규모 실험 프로그램은 이미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때 학업 성적과 규율 방면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행복 수업은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도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승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귀한 생각을 할 때, 온 우주가 우리를 찬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그들의 장소를 방문해 주길 기다립니다." (1991. 9. 29. 포모사 시후 센터/ 원문 중국어)

우리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건강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영국 정부의 결단에 축하를 보낸다. 신의 축복으로 온 세상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기원한다! 

참조:

<http://www.wellington-college.berks.sch.uk/page.aspx?id=595>

<http://www.thehappinessinstitute.com/weblog/index.php/2007/09/04/happiness-lessons-for-all-pupils/>



까마귀의 영민한 지능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제338회 뉴스

뉴 칼레도니아 까마귀는 지능적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야생에서 그들은 부리를 이용해 작은 가지를 깎아서 갈고리를 만들고 나뭇잎을 다듬어 먹이를 구할 줄 안다. 몇 년 전, 뉴칼레도니아 까마귀 한 마리가 곧은 철사로 갈고리를 만든 다음 그것으로 플라스틱 관 바닥에 있는 음식 그릇을 들어올림으로써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최근 과학자들은 뉴칼레도니아 까마귀의 높은 추리 능력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다. 하나의 도구로 다른 도구를 생각해 내 먹이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몇 까마귀들을 실험한 결과, 한 번 만에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간혹 고릴라에게서만 볼 수 있는 추리 능력을 새들도 갖고 있음을 과학자들에게 알려 주었다.

우리의 영리한 작은 동물 친구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시킨다! 놀라운 존재들로 이 세상을 다채롭게 해주신 신께 감사드린다. 🦋

참조 : <http://www.msnbc.msn.com/id/20298869/>

나눌 줄 아는 백조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저 장(浙江) 성 항저우(杭州) 시 샤오산(蕭山) 구 라오후동(老虎洞) 산기슭의 호수에는 검은 백조와 흰 백조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다. 얼마 전 경비원이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았다.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입에 물고 가 물 속의 금붕어에게 먹이는 것이었다. 실제로 매일 아침 10시가 지나면 호수에 있던 아홉 마리의 검은 백조가 대나무 뗏목 위를 걸어와서 금붕어에게 먹이를 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물로 돌아가 헤엄을 친다. 배불리 먹은 금붕어들도 절친한 친구처럼 그 백조들 뒤를 따라 헤엄을 친다. 이제 이 백조들은 대스타가 되었고, 이 따뜻한 광경을 보러 많은 사람들과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찾아왔다. 🦋



운명에 절대 굴하지 않는 타로

-불완전한 몸을 가진 건공

일본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타로에 관한 책 『불완전한 몸을 가진 타로의 일상』


최 근 일본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한 수의사와 불구의 몸을 가진 그의 사랑스런 개 ‘타로’를 특별 기사로 보도했다. 그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문해 생명에 대한 공부를 가르친다. 처음 그들이 학교의 초청을 받은 것은 9년 전이었다. 지금 타로는 거의 열두 살이 되었는데 사람으로 친다면 63세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아주 평온한 태도를 보여 주는 그의 크고 둥근 눈은 여전히 매력이 넘친다.

타로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절에 버려졌는데, 근처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집에 데려가 사랑으로 길렀다. 타로는 한 살 때 원인 모를 불치병을 앓게 되었다. 두 번의 수술 끝에 그는 네 다리와 양쪽 귀, 꼬리의 껍사 부위를 잘라냈다. 할아버지가 자주 타로를 보러 오곤 했지만 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게 된 타로는 식욕을 잃었다.

나중에 그 수의사가 그를 입양했고, 새로운 보호자의 보살핌과 사랑 속에 타

로는 건강을 회복했다. 비록 그는 소중한 다리를 잃었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뛰어 오르거나 달릴 수 없는 그는 기어서 돌아다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명랑하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낸다. 살고자 하는 타로의 강한 의지와 낙천적인 성격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타로를 사지가 없이 태어났음에도 전진하고자 애쓰는 용감한 청년 오토다케 히로타다에 견주며 ‘오체불만견(五體不滿犬)’이라고 존칭하기도 했다.

타로의 보호자는 그를 학교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한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줄을 서서 한 명씩 차례로 타로를 쓰다듬는데, 그것은 수업에 참가한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이다. 그 경험에 깊은 감동을 받은 몇몇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한 달 뒤 타로와 수의사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그중 한 아이는 “누구든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있으며 그때서야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다른 아이는 이렇게 썼다. “만일 타로가 다리와 귀와 꼬리 모두를 가졌다면 아마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곳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결코 잃지 않았어요. 바로 그의 ‘마음’이지요.”

이 아이들은 타로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 같다. 생명은 귀중한 것이며 어떤 불행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항상 용감하고 명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삶에 관한 이런 수업에서 타로의 존재는 매우 영향력 이 큰 교재이다. 한 선생님은 “인간뿐 아니라 아주 작은 곤충에서 거대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형태의 생명은 우리에게 갖가지 진리를 보여 줍니다.”라고 말했다. 수의사는 타로의 신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아이들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약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숭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수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http://news.rkb.ne.jp/rkb_news/archives/006476.html (일본어)
http://www.ntv.co.jp/news/asx_dai2/070801098_300k.asx (NTVvideo: 일본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시청에 흠뻑 빠진 고양이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저 것 좀 봐요! 정말 예쁜 털을 가진 장난감 고양이네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한 손님이 고양이를 보고 좋아하며 가게 주인에게 말했다. 가게 주인이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손님은 참지 못하고 그 고양이를 만졌다가 놀라 소리쳤다. “아니! 장난감 고양이가 아니잖아!” 가게 주인은 손님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신기하세요? 이것보다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컴퓨터를 끄자 그 사랑스런 ‘장난감’ 고양이가 일어나 가 버렸다. 손님은 정말 놀라워하며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고 물었다.

이 고양이는 태어난 직후 버려져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저가 발견해 입양했다. 그 당시 고양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저는 고양이를 더 잘 보살피기 위해 가게로 데리고 왔고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방식도 마련해 주었다. 온 가족이 고양이를 세심하게 보살피 주며 채식 음식을 먹였다. 새끼 고양이는 채식이 아닌 음식을 주면 입도 대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라서 매우 활기차고 사랑스럽고 사람 뜻을 잘 헤아리는 고양이가 되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개국한 이후, 사저는 컴퓨터를 구입해 매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틀어 놓았다. 그때부터 고양이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방식에서 뒹굴던 습관을 바꿔 이제는 계산대 위에 올라가거나 스피커 위에 앉으려 완전히 몰입해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그는 삼매에 들어 스승님의 신성한 축복에 완전히 도취된 듯 꿈쩍도 하지 않는다. 누가 부르거나 만져도 조금도 주의력을 흐트리지 않는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틀어 놓기만 하면 음식도 먹지 않고 물만 조금 마실 뿐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장난감 고양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꺼지면 그는 실망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난다.

모든 중생들에게 신성한 축복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릴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모든 중생들에게 우리의 자비심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동물 또한 불성이 있으며, 그들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수행해 자신을 고양시키고 있는 것이다. 🦋





채식인에게 생명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영국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영국의 생명보험업계가 채식주의가 평균 예상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채식주의인은 주요 질병에 덜 걸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비영리 보험사인 '동물 친구 생명보험(Animal Friends Insurance)'은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에게 생명보험료를 6% 우대 할인해 주고 있다. 이는 영국의 수백만 채식주의인과 그 외 건강한 생활 방식을 택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멋진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의학적 증거와 연구들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일반인에 비해 특정 암에 걸릴 확률이 40% 적으며, 심장병은 30% 적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출처:

<http://www.thesun.co.uk/article/0,,2005300000-2007420157,00.html>

http://pr-gb.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4917&Itemid=9

채식은 토지 자원을 덜 소모시킨다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최근 채식과 육식 식생활 따른 토지 수요량을 조사한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의 연구에 의하면, 채식 식생활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에 필요한 땅의 4분의 1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뉴욕 주의 모든 사람들이 저지방의 채식을 할 경우, 뉴욕 주의 농작물로 지금보다 거의 50% 이상의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출처: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07/10/071008130203.htm>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온 가족과 친척, 친구를 돌보시다

펄리루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놀라운 만남

1993년 음력 첫날, 놀라우신 신의 안배로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호텔에서 스승님과 멋진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그건 정말 내게 있어 최고의 영광이자 축복이었다. 그 당시 나는 가이드로서 일본에서 관광객들과 동행 중이었다. 도쿄에 도착한 날 밤, 나는 친숙해진 몇몇 회원의 초대로 함께 호텔에서 커피도 마시고 야경을 즐겼다. 그중 한 사람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카메라를 지갑으로 잘못 알고 가지고 왔다.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며 웃고 있는데 나는 다 같이 아래층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호텔 각 층의 장식을 구경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우리가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멀리서 청하이 무상사께서 사자 한 명과 함께 우리 쪽으로 오시는 것이 보였다. 지갑 대신 카메라를 들고 왔던 회원이 소리쳤다. “어머나! 우리 대장 목걸이 사진에 있는 청하이 무상사님이 아니신가요? 어떻게 지금 여기 계신가요?”




나 또한 잠시 멍했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스승님께 여쭙다. “스승님! 시후 센터에 계시지 않으셨나요? 어머니가 어제 스승님을 뵈러 갔는데요…….” 스승님은 다정히 미소 지으시며 그날 정오에 포모사에서 일본으로 왔다고 말씀해 주셨다. 잠전의 그 회원이 스승님께 다가가서 함께 사진을 찍자고 청했다. 그제야 그녀가 지갑 대신 카메라를 가져오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카메라로 스승님과 우리 사진을 찍을 운명이었던 것이다! 스승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와 사진을 찍으셨을 뿐 아니라 장난스럽게 내 팔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몇 장 더 찍도록 해요. 당신 어머니가 부러워하게요.”

어머니는 매우 겸손하시고 순수한 사람이라서 어떤 타협도 없이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신다. 그래서 스승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온 가족과 친척들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심지어 나의 친구들도 이익을 얻는다. 입문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들 스승님의 자애로운 보살핌을 느낄 수 있다.

아버지가 축복 속에 떠나시다

3년 전, 아버지는 매우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우리 가족 모두 슬펐지만 스승님께 매우 감사드렸다. 사형사자들이 줄줄이 이어서 명상하러 와 주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우리 가족 모두 깊이 감동받았으며 슬픈 마음도 진정되었다. 우리는 정말 아버지를 떠나보내기 싫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청하이 스승님과 함께 가셨기에 무척 안심이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 후, 양 사저가 아버지 영전에 명상하러 와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우리에게 말했다. “지금 막 당신 아버지가 내게 와서 가족들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어요. 그는 지금 칭하이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러 가니 식구들더러 괴로워하지 말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장하는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동수들이 찾아와 아버지 영전에서 명상해 주었다. 빈소는 동수들로 가득했다. 한 사저는 아버지가 매우 행복한 모습으로 한쪽에 서서 손님들에게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스승님이 언제나 온 가족을 돌보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 아주 감격하고 감동하였다. 




스승님의 농담

소중한 유품

칭하이 무상사/ 2002. 5. 12.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7**

어떤 사람이 한 여자에게 물었어요. “목에 로켓을 걸고 계시군요.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주 소중한 유품이겠군요.” “예. 남편의 머리카락을 넣어 둔 거예요.” 여자의 대답에 그 친구가 “어머나! 감성이 정말 풍부하시군요! 그런데 당신 남편은 살아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알아요. 하지만 그이 머리카락이 다 없어졌거든요.” 



스승님의 농담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감상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91/jk1.htm>
<http://www.Godsdirectcontact.us/sm21/enews/www/191/jk1.htm>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 홍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스승님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오셨다. 어딘가에 재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스승님은 즉시 재정적인 지원을 보내시고 재해 지역에 구호 팀을 파견해 도우신다. 이 같은 구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다. 스승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축복, 도움으로 세계적인 재난이 최소화되었음은 분명하다.

스승님께서 세계 각지의 정부와 단체, 구호 대원들의 사심 없는 노력을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

“이재민들에게 관심과 구호품을 가져다준 모든 국제적인 원조에 감사를 보냅니다. 또 자신의安危를 돌보지 않은 채 시간을 내어 좋지 않은 도로 여건과 여러 악조건을 뚫고 멀리까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원조를 제공해 준 모든 구호 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과 고귀한 희생이 하늘의 충만한 축복으로 보답받길 기원합니다.”

북한

북한 수재민 돕기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북한은 최근 홍수로 인해 약 6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많은 가옥과 건물이 파괴되고 농지의 20%가 물에 잠겼다. 유례없는 이 재난으로 인해 남북 정상 회담도 10월 초로 연기되었다. 수재가 발생한 뒤 한국 정부와 시민 단체, 여러 국제 기구에서 적극적인 사랑의 손길을 북한에 뻗고 있다.



〈1차 구호 물자 지원〉

재난이 발생하자 즉시 칭하이 무상사는 한국 동수들에게 수재민을 도와주라고 당부하셨다. 이에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구호 물자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해 수재민들에게 전달되었다. 협의회의 요청으로 우리 협회는 수재민들이 진흙탕이 된 집을 청소할 수 있도록 4만 장의 품질 좋은 비누를 구입했다.

8월 25일 긴급 구호 물자가 인천항에서 선적되던 날, 출발에 앞서 구호 활동에 참가한 단체들이 기증식을 거행했다. 이 기증식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인 홍정기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모두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신속한 도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협의회 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차 구호 물자 지원〉

스승님께서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미화 3만 달러를 한국 동수들에게 보내셨다. 이 돈으로 우리 '재난구호봉사단'은 신속하게 물품을 구입해 9월 6일 30KW급 발전기 1대와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한 건축 자재(못 1,500kg)를 보냈다.



〈3차 구호 물자 지원〉


한국 동수들은 제3차 활동을 진행하면서 특별 수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신속하게 구호 물자를 구입했다. 밀가루 1,400부대, 냄비 2,250개, 담요 1,000장을 비롯해 총 29,300달러어치의 물품이 구입되었다.

북한은 추위가 일찍 찾아오기 때문에 동수들은 수재민들을 위해서 고급 담요를 구입했다. 또 홍수로 인한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어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재민들에게 밀가루를 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9월 12일, 긴급 구호 물자가 육로를 통해 북한의 개성까지 운송되었다. 민간 물자가 육로로 운송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우리 협회의 '재난구호봉사단'은 한국 정부의 승인 아래 다른 구호 단체들과 함께 구호 물자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특별한 경우로서 북한 당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준 일이었다. 봉사단이 개성에 도착했을 때 그곳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스승님이 보내 주신 물자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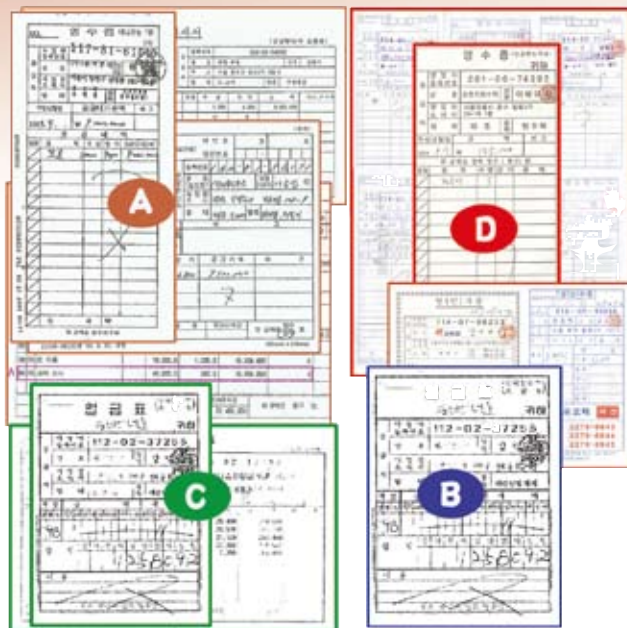
한국 동수들은 북한에 가서 직접 구호 물자를 전달하게 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동안 내내 스승님께서 인도하시고 구호 활동을 위한 자금을 보내 주셨고, 이로부터 우리 봉사 단원들이 그 일을 마칠 수 있게 하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 동수들은 신의 놀라운 안배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북한 홍수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원)

지출 내용	금액	영수증 번호
구호 물자(밀가루, 담요, 비누, 냄비)	37,520,000	A
30KW급 발전기	11,000,000	B
건축용 못	1,000,000	C
잡비(포장, 현수막, 운송료 등)	319,300	D
합계	49,839,300원 (미화 54,368달러)	



대한민국

노란 조끼를 입은 천사들이 태풍 희생자들을 돕다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최 근 태풍 '나리' 호가 한국 남부 지방을 강타하는 바람에 제주도에 는 일일 강우량 최고 기록의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많은 가옥들이 물에 잠기는 등 3천 2백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안녕을 염려하신 칭하이 무상사는 즉시 한국 동수들에게 피해 지역에 긴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셨다. 제주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약 15명의 동수들이 배편과 비행기편으로 재해 지역으로 달려갔다. 제주도민들은 추석 휴가를 기꺼이 포기한 채 자신들을 도와주러 온, SM 로고가 새겨진 노란 조끼를 입은 이 천사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온정이 넘치는 도움의 손길

9월 21일 도착한 동수들은 처음 이틀간은 잔해와 오물로 뒤덮인 집과 창고, 주위 환경을 청소했다.

80세의 독거 노인,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한 여인, 장애인이 있는 가정 등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원의 부러진 소나무 가지를 치우고 주변 정리를 해서 추석 명절에 맞추어 본래 상태로 회복시킨 것을 본 지역 주민들은 우리 노력에 무척 고마워했다. 재난구호봉사단은 자원 봉사자 센터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각종 작업에 차례차례 투입되었는데, 다른 구호팀보다 최소 3배나 빨리 일을 마친다는 찬사를 들었다.

복구 현황을 시찰하러 나온 김태환 제주 도지사는 우리의 협조에 친히 감사를 표시했다. 우리는 '1365 중앙구조단' 김성기 단장을 초빙하여 10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재난 구호 활동을 펼친 그의 경험담을 들으며 향후 우리 구호단의 활동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모두의 감사를 받은 구호 활동

9월 23일, 봉사단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사무소 직원, 대민 지원 군인들과 함께 해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복구하는 작업을 했다. 우리는 한 노인 부부가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그 진흙밭으로 달려갔다. 스승님의 안내 덕분에 전문 구조 요원이 비닐하우스의 철골 구조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김성기 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같이 일해 본 자원 봉사 단체들 가운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회원들은 순수하고 밝은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고 하며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은 다음날까지 계속되었다.

태풍 ‘나리’ 호로 인해 제주도는 초토화되다시피 해서 우리 단체처럼 구조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더 고양되고 고무되는 느낌을 받았다.

봉사단의 사저들은 대다수가 50세가 넘었지만 용감하게 구조 활동에 나섰다. 스승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제주도민들이 하루빨리 긍정적이고 활기 차며 평화로운 생활을 되찾기 바란다. 🦋



니카라과


니카라과 허리케인 펠릭스 구호 작업

코스타리카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 승님은 9월 초에 허리케인 펠릭스(Felix)로 인해 니카라과에 긴 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시고는 즉각 미국 사형 세 명과 코스타리카 사저 세 명으로 구성된 구호 팀과 2만 달러를 보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도와주셨다. 구호 팀이 간 지역은 후아퀼(Huakwill), 붐시르피(Boom Sirpi), 시신(Sisin), 카믈라(Kamla), 산타마르타(Santa Marta), 투아피(Tuapi) 등 푸에르토카베자스(Puerto Cabezas)에 속한 마을들이었다.

우리는 공항에서 신이 보내 주신 '천사'인 케사르 넬리(Cesar Nelly) 씨를 만났다. 그는 스페인어와 영어는 물론 그 지역 토착어인 미스퀴토(Misquito)어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를 안내해 주고 통역까지 해주기로 했다. 우리는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가장 시급한 물품을 파악한 다음 최적의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 각 상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많은 상점에서 우리가 사려고 했던 식료품들이 동이 나고 없었다. 그럼에도 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며 계속 찾아다니던 끝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된 곳을 찾았다. 그 상점의 주인은 대단히 관대하고 협조적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물품부터 먼저 주고 다음날 대금을 받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창고에서 구호 물품을 포장하도록 허락도 해주었다. 또한 호텔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숙소도 제공해 주었다. 우리는 신의 빈틈없는 안배에 놀라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날씨마저 우리 편이어서 우리가 구호 작업을 시작할 때면 폭우가 멈췄다가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를 보자 원주민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미소로써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탕과 과자도 주었는데 그들의 근심스럽던 표정이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동네의 개들까지 줄을 서서 우리를 환영해 주었으며 그들도 물론 과자를 받았다.

구호 팀 동수들은 신의 도구로서 이 고귀한 임무를 맡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의 사랑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축복으로 느꼈다.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니카라과 허리케인 구호 작업 지출 일람표

(단위: 니카라과 코르도바)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식품(쌀·밀가루·콩·생수·과자·두유가루·라면), 양초, 성냥	403,160.80	N1
운송비	27,900.84	N2
합계	431,061.64 (미화 23,405.80달러)	



수단

어둠 속에서 쏙불을 밝히다

케냐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7년 7월부터 내린 폭우로 수단의 백나일(White Nile) 주, 특히 코스티(Kosti) 지역에 홍수가 발생해 약 천 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6, 7천여 명이 갈 곳을 잃게 되었다.

9월 초에 코스티에 도착한 동수들은 '인도적 원조 위원회(Humanitarian Aid Commission)'의 위원장인 페크리(Mr.

Fekri) 씨와 '유엔 세계 식량 프로그램(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의 지역 사무소장인 모하멧 씨를



만났다. 모하멧 씨는 유엔에서 이미 3개월 분의 식료품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처가 가장 시급하다고 알려 주었다.

우리는 스승님이 기부하신 3만 달러로 180개의 구입했다. 그 지역 시




인도적 원조 위원회의 위원장인 페크리 아라디브 바탈 씨(왼쪽 두 번째)가 수재민을 대표하여 우리 협회 회원에게서 텐트를 받다.



장에서 판매하는 텐트는 매우 비쌌지만 우리의 봉사 정신에 감동한 공급상이 가격을 할인해 주었다. 우리는 '대안적인 삶' 전단과 견본책자를 넣어 텐트를 포장한 다음 '인도적 원조 위원회'를 대신 배포해 달라고 건넸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도 나흘 동안 지역 신문에 실렸다. 동수들은 가는 곳마다 전단과 견본책자를 나눠 주면서 지역 주민들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주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 불가능한 여정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스승님의 사랑 덕분이다. 물질적인 도움은 다소 한계가 있었지만 그곳

에서 일어난 일은 어둠 속에 빛나는 촛불과 같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랫동안 인류의 흘대를 받았던 땅을 신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수많은 촛불들이 빛나고 있으니 이 땅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우리 동수들은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백나일 주의 인도적 원조 위원회 위원장이 보낸 감사 편지.



미화 29,700달러의 텐트 구입 영수증과 미화 600달러의 운송비 영수증.

포모사

거리의 친구들이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5일, 타이베이 동수들은 타이베이 시 사회복지국 완화 복지관을 방문해 샴푸와 바디샴푸 각각 큰통 4개, 총 450kg과 운동용 보온 바지 새옷 200벌, 면도기 300개를 기증해 노숙자들이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뉴스잡지와 견본책자 수십 권도 같이 기증했다. 완화 복지관 관장인 중페이전(鍾佩珍) 여사와 사회복지사 장셴중(張獻忠) 씨, 노숙자 차이 씨가 선물을 받았다.

그곳에서 목욕을 하려고 기다리던 많은 거리의 친구들이 바로 뉴스잡지를 읽었다. 그들은 또 동수들과 대화를 나누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우리 협회가 항상 운동화와 운동복, 따뜻한 외투, 일상용품, 식료품 등을 기증해 주고 자신들이 재출발을 하도록 큰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었다고 말했다.

관장인 중 여사와 사회복지사 장 씨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런 사랑의 활동을 하도록 격려해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매우 감사드리는 한편 많은 불우한 친구들이 새 출발을 하여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도록 도와준 국제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사심없는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노숙자 대표 차이 씨(오른쪽).



이미 자력으로 갱생한 린 씨(오른쪽)가 보라색 회사 유니폼을 입고 우리와 사진을 찍었다.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humanitarian>

(연도, 국가/지역, 사건별 검색 가능)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또는 폭넓게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냉:
코토노우/ Mr. Yedjenou Georges/ 229-93076861/ smchwisdom@gmail.com
코토노우/ Mr. Yedjenou Sylvestre/ 229-21380404/ yedsylvestre@gmail.com
코토노우/ Mrs. Hounwanou Sessito Lucie/ luxe21@yahoo.ca
포르토노보/ Mr. Hounhou Mahougbe Didier/ 229-90-93-29-99/ smportono@yahoo.fr
★ 부르키나파소: Ouagadougou/ Mr.YAMEOGO Honore/ 226-70-62-34-58/ honoreyam@yahoo.fr
★ 카메룬:
두알라/ Mr. Daniel Xie/ 237-3-3437232/ smcameroon@gmail.com
두알라/ Mr. Thomas KWABILA/ 237-99-15-05-73/ thomaskwa@yahoo.fr
두알라/ Mr. BIANE Alain Frederic AHMADOU/ 237-99-86-50-26/ alainbiane@yahoo.fr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킨샤사/ Mr. Hung Lui-Liang/ 243-813611939/ blessedcongo@yahoo.fr
킨샤사/ Mr. Mbau Ndombe Abraham/ 243-811433473
★ 가나:
아크라/ Mr. Amuzu Kwei Samuel/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아크라/ Mr. Emmanuel Koomson/ 233-244170-230
★ 케냐: Mr. Chin Szu Yao/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lius@intnet.mu
★ 나이지리아:
예니코야/ Ms. Harry Juliana/ 234-8032365567/ 234-805-802/ 8206brayila@yahoo.com
★ 콩고공화국:
브라자빌/ 센터/ 242-5694029, 242-5791640/ goldenagecongo@yahoo.fr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llole Truelove/ 27-76742-5040/ emzinikababa@yahoo.com
★ 토고:
팔레메/ Mr. Dossouvi Koffi/ 228-905-42-76/ jdossouvi@yahoo.fr
팔레메/ Mr. Late Komi Mensa/ 228-441-09-48/ smkpalimetogo@gmail.com
로메/ Mr. GBENYON Kuakivi Kouakou/ 228-902-72-07/ kgbenyon@yahoo.fr
로메/ Mr. GERALDO Misbaou/ 228-022-78-44/ mmylg@yahoo.fr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264-9807/ semazima@yahoo.com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acasa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3-4625964
★ 브라질:
벨렘/ Ms. Cleci de Brito Neves/ 55-9188019288/ Contato.belem@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튼/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센터/ ottawacentre@gmail.com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pb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17-0946/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gmail.com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5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mexicali.center@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l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니카라과:
마나гу아/ M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6673-2220/ mrle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981-836314/ emilce_cespedes@hotmail.com
시우다드델에스테/ Mr. and Mrs. Italo Acosta/ 595-578571, 595-983614592/ Italoacostaa@hotmail.com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gmail.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er@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3565176/ teresita41@hotmail.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1-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gu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Ms. Dianela Carola Diaz Ferreira/ 58-4168605497/ daniel33@yahoo.es
★ 미국: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christophers2@cox.net
§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l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yahoo.com
새크라멘토/ Mr. Tuan Minh Le/ 1-916-226-9197/ tuanins@yahoo.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lcenter@hotmail.com
새너제이/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새너제이/ Mr. Jingwu Zhang/ 1-408-505-5824/ jingwuzhang@hotmail.com
새너제이/ Ms. Mai Thanh Phan/ 1-408-603-5037/ smthanhmai@yahoo.com
§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ai@gmail.com
§ 플로리다:
잭슨빌/ Mr. David Tran/ 1-904-285-0265/ jax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도/ Mr. Johnny Scott-Meza/ 1-407-529-7829/ scottmezaJohnny@yahoo.com
§ 조지아:
센터/ georgiacenter@hotmail.com

Mr. Roddell Pleasants/ 1-678-429-7958
 Ms. Kim Dung Thi Nguyen/ 1-404-422-1431
 § 하와이: Mr. Neil Trong Phan/ 1-808-398-4693/ neilphan@gmai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tz/ 1-317-842-8119/ joslepoe@sbcglobal.net
 § 캔터키: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l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볼티모어/ Mr. Pete Theodoropoulos/ 1-410-667-4428/ petetheo1111@hotmail.com
 § 매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842-0262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nmn@yahoo.com
 § 미주리: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mst.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Mr. Hero Zhou/ 1-973-960-6248/ yb_zhou@hotmail.com
 Ms. Lynn McGee/ 1-973-864-7633/ lynn.mcgee@yahoo.com
 Ms. Bozena Chetnik/ 1-973-896-8659/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Mr. Fred Lawing/ 1-704-614-4397/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크하임: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크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931-4699/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사우스캐롤라이나: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474-3492/
 smch_southcarolina@yahoo.com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i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델러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델러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tx.rr.com
 델러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델러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2321@att.net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comcast.net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888@comcast.net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워싱턴 DC/ 센터/ 1-703-997-1622/ VA_Center@yahoo.com
 버지니아/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ly@hotmail.com
 버지니아버치/ Le Thanh Liem/ 1-757-461-5531/ qytek@yahoo.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뮈/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i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sh.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Gin/ 886-3-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i/ 886-3-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l@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l.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co.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al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harry_1@sby.dnet.net.id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4-650-7704/ yogyakartawisdom@yahoo.com
 ★ 이스라엘:
 텔아비브/ Mrs. Talya Tal/ 972-50-8511720/ tal.talya@gma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b.biglobe.ne.jp
 도쿄/ Mrs. Hyakutake Toshiko/ 81-90-4923-1199/ binta@k7.dion.ne.jp
 도쿄/ Mrs. Yoshii Masae/ 81-90-6542-6922/ smchlute@gmail.com
 도쿄/ Mrs. Sato Rie/ 81-80-5654-1688/ riesato302@yahoo.co.jp
 오사카/ 센터/ smchtoosaka@gmail.com
 오사카/ Mr. Le Khac Duong/ 81-90-6064-7469/ leduongjp@yahoo.com
 나고야/ 센터/ 81-90-3447-3117/ yumiko-emi@hotmail.co.jp
 ★ 요르단: Mr. Jafar Marwan Irshaidat/ 962-7-95119993/ estaphuam@hotmail.com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강진태/ 011-263-3563/ samwoncokr@daum.net
 서울/ 류경남/ 011-715-7693/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gmail.com
 부산/ 송호준/ 010-3599-4552/ shj92324@hanmail.net
 부산/ 황상원/ 051-805-7283/ 817hsw@naver.com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10-3804-5048/ freely3456@yahoo.co.kr
 대구/ 한선태/ 010-3034-5232/ sunny5338@hanmail.net
 대구/ 차재현/ 010-4666-0733/ edwadcha@yahoo.co.kr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jeon@yahoo.co.kr
 대전/ 김선제/ 042-581-3718, 017-425-2390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최병선/ 011-9715-9394/ buda1996@hanmail.net
 광주/ 센터/ 062-525-7607/ smgwangju@naver.com
 광주/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광주/ 이민규/ 011-609-2243/ mglee2243@naver.com
 광주/ 김경로/ 017-622-2374/ k2road@gmail.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hundinch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244-1250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안동/ 김삼태/ 010-4570-9244
 울산/ 센터/ 052-224-4111
 울산/ 유한주/ 010-5298-6625/ gkswn6625@hanmail.net
 원주/ 센터/ 033-763-9358
 원주/ 정광훈/ 019-369-2509/ funnychong@hanmail.net
 원주/ 김진숙/ 010-4715-2509/ chinskim@hanmail.net
 청옥/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mboon_9@hotmail.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28532231/ mcdv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28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oldpiong@streamyx.com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ismch@yahoo.com
 쿠알라룸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streamyx.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울란바토르/ Ms. Bolormaa Avirmed/ 976-11-341222/ bolor_suvd@yahoo.com
 울란바토르/ Mr. Bayarbat Rentsendorj/ 976-99774277/ quanyin_mongolia@yahoo.com
 코톨/ Mr. Chinsukh Uuter/ 976-99110446/ khotolcenter@yahoo.com
 코톨/ Ms. Tsendorj Tserendorj/ 976-99370917/ tsendee_hutul@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ikss@mptlail.net.mm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75-6609/ phi.loveocean.mnl@gmail.com
 마닐라/ Ms. Kim Thuy Bich Chau/ 63-917-258-7642/ chauthuykim@yahoo.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ence Fernando/ 94-11-2412115/ smchnirvana@gmail.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c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bkctcp@gmail.com
 방콕/ Mr. Chusak Osonprasop/ 66-081-4816500/ mummykat@hotmail.com
 방콕/ Mrs. Ratchanan Jintana/ 66-081-7515227/ bkkcpcr@gmail.com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thamnan/ 66-50-332136/ siriwanily@gmail.com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Mr. Dhiraj D. Radadiya/ 971-50-3118499/ dradadiya@yahoo.com
 두바이/ Mr. Mahesh Shah/ 971-50-4503514/ map_shah@yahoo.com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64-9953748/ qyaustria@googlemail.com
 비엔나/ 연락인 사무실/ 43-650-8420794/ ngocdany@yahoo.com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s.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quanyinsolia@gmail.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98-9706788/ zeljstar@inet.hr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i.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프라하/ Mr. Nguyen Tuan Dung/ 420-608124709/ czech-center@spojenisbohemi.cz
 ★ 덴마크:
 오덴스/ Mr. Thanh Nguyen/ 45-66-190459/ ductam@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strid Murumagi/ 358-50-596-2315/ helsinkicenter@yahoo.com
 헬싱키/ Mr. Tri Dung Tran/ 358-40-7542586
 ★ 프랑스:
 알사스/ 센터/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lumieretson@gmail.com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몽펠리에/ Mr. Sylvestre Thomas/ 33-4-67650093/ ocean-amour@wanadoo.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Mr. Grigori Guinzbourg/ 49-30-5498-6147/ Grigori.Guinzbourg@gmx.de
 베를린/ Ms. Hoa Thi Hoang/ 49-30-3083-4712/ Pureocean@web.de
 뒤스부르크/ Mr. Veithen, Michael/ 49-174-5265242/ dusseldorfcenter@hotmail.com
 뒤스부르크/ Ms. Tran, Thi Hong Mai/ 49-2162-8907108/ mai_tran70@yahoo.de
 프라이부르크/ Ms. Elizabeth Muller/ 49-7634-2566/ elmueart@surfeu.de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뮌헨/ Mr. Nguyen, Thanh Hai/ 49-89-353098/ ha_nguyensm@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vicky.chriskou@g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부다페스트/ Mrs. Aurelia Haprai/ 36-20-2400259/ doraur@gmail.com
 ★ 아이슬란드: Ms. Nguyen Thi Lien/ 354-5811962/ reykvjavik_center@yahoo.com
 ★ 이탈리아:
 페스카라/ Mrs.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캄포바소/ Mr. Francesca Spensieri/ 39-333-722-5527/ lancy_lalla@yahoo.it
 볼로냐/ Mrs. Nancy Dong Giacomozzi/ 39-320-341-0380/ QuanYinBologna@gmail.com
 ★ 아일랜드:
 더블린/ Mrs. Hsu, Hua-Chin/ 353-1-4865852/ smch_dublin@yahoo.co.uk
 더블린/ Ms. Kathleen Hogan/ 353-87-2259619/ dublinquanyin@gmail.com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k/ 48-91-4874953/ ginka_5@yahoo.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알코바카/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jvcaldeira@clix.pt
 ★ 루마니아: 부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9104659738/ moscowcenter@rambler.ru
 모스크바/ Mr. Oleg Dmitriev/ 79165763796/ moscowcenter@mail.ru
 ★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Ms. Maja Mijatovic/ 381642748820/ majazemun@yahoo.com
 ★ 슬로바키아:
 질리나/ Mr. Roman Sulovec/ 421-903100216/ roman.sulovec@spojenisbohemi.sk
 ★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류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forevershinelove@gmail.com
 마리보/ Mr. Rastislav Alt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t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 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발라가/ Mr. Joaquin Jose Pretel Lopez/ 34-646843489/ joprelo@hotmail.com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s. Wenqin Zhu/ 34-96-3301778, 34-695953889/ valenciachinghai@yahoo.es
 발렌시아/ Mr. Jose Luis Ordena Huertas/ 34-653941617/ joselorduna@gmail.com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den@gmai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3-38097, 46-70-6219906/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rsula_klein@bluewin.ch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hotmail.com
 암스테르담/ Mr. Roy Mannaart/ 31-653388671/ r.mannaart@planet.nl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임스워치/ Mr. Zamir Elahi/ 44-7843-352919/ zamir.light@g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londonukcentre@googlemail.com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런던/ Mr. Danny Ejayese/ 44-7949798310/ danny_zen@yahoo.co.uk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isshop/ 61-7-3901-7038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l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gmail.com
 캔버라/ Ms. Jayita Belcourt/ 61-4-0976-1005/ jayita@amrita.com.au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n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미드 노스 코스트/ Mr. Eino Laidsaar/ 61-2-6550-4455/ goldenagecenter@gmail.com
 노던 리버스/ 바이런 베이/ Mr. and Mrs. Jonathan Swan/ 61-2-6624-7209/ byronbaycentre@gmail.com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시드니/ Mrs. Kathy Divine/ 61-2-9891-5609/ universalove22@yahoo.com.au
 태즈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62233118/ ray_dixon@bigpond.com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34/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 CRO4 (중국어)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1998. 5. 6. 한국 영동 센터 국제 선오

주요 내용:

명 상할 때 지혜안에 집중하지 못할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방법은? 부처가 말한 ‘중도를 수행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루 24시간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을 무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에고에서 비롯된 것인지 선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기공 수련자들은 자기 스승의 화신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처의 화신과 유사한 것인가? 스승님은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축복 받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 늘 감사히 여기고 신의 은총을 소중히 하라고 격려하신다. 



CD CG17 (중국어)


살아 있는 깨달은 스승의 힘은 불가사의하다

1989. 1. 2. 포모사 시후 센터 단체 명상

주요 내용:

깨 달은 참 스승은 신통을 사용해 자신의 생명을 늘리려고 하지는 않지만 깨달은 스승 앞에서는 고목에도 꽃이 피고 죽은 존재도 살아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살아 있는 참 스승을 찾기는 왜 그리 어려운가? 깨달은 스승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깨달은 스승은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을 지녔건만 왜 자고이래로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려고 할 때면 목숨이 위태로웠는가? 스승님은 인도의 도력 높은 깨달은 스



승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신의 힘과 깨달은 스승의 권능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설명하신다. 임종을 맞이한 친척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DVD 778 (영어+25개 언어 자막)

영적인 진보는 일상생활에서 반영된다

2006. 11. 30. 세계 평화를 위한 명상, 태국 특별 세미나

주요 내용:

칭하이 무상사와 제자들 간의 이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수행에 관한 수많은 진상들이 밝혀졌다. 스승님은 일상생활에서 주의력이 흩어지는 일을 피하고 보다 영적인 생활 방식을 살아가도록 모두를 격려하신다. “앉아 명상할 때, 집중할 수 있으면 언제든 집중하세요. 집중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세요. 자전 거 타기를 연습할 때처럼요. 아무도 그렇게 빨리 성공하지는 못해요. 일반적으로 말해 여러분 중에 빛을 많이 보지 못하거나 소리를 많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계속 명상한다면 설령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도 계산됩니다. 모두 계산되지요. 여러분이 업장이나 집중력, 환경의 영향, 직업적 압박감, 감정 문제들로 인해 체험이 많지 않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더 많은 평화와 고요함, 사랑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진보인 것입니다.”



DVD 655 (영어+25개 언어 자막)

어린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1999. 5. 31. 스웨덴 스톡홀름 강연

주요 내용:

아름다운 나라 스웨덴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어린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신, 내면의 영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성장하면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신성한 불꽃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관음법문을 통해 신성함과 순수함, 성인의 성품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으며 어린아이가 된 듯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다. 순진했던 우리 생명의 진화와, 신과의 연결을 통해 얻어지는 선물인 진정한 행복을 다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라.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듯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신을 믿는다면 우주의 본질과 신의 왕국으로 가는 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아주 간단한 것이다. 🦋

